

잊었니



잊지 않았습시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나요.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당신은 빛나고,
화승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인걸요.

Do Better Tomorrow



그때를
잊었니

화승R&A FL 생산기술팀
조재형 사원

잊거나, 잃거나 있거나, 없거나

고이고이 간직해 놓은 내 어린 시절 배내옷.
초등학교 입학하던 그 짝한 설렘.
대학시험 치던 날, 기도하고 또 기도하던 간절함.
그 무렵 사랑니처럼 앓던 첫 사랑.
세상을 다 얻은 것 마냥 행복했던 대학시절.
그러나 너무나 가혹했던 취업의 높은 문턱.
두려움 반, 설렘 반, 첫 출근 날.

어쩌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처음입니다.
처음부터 잘할 순 없지만
처음부터 잘하고 싶은 우리였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낮선 자신을 발견하곤 했었죠.

시간이 흐른 후에,
수많은 달력의 페이지를 넘긴 후에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소중했던 그때를.
그리고 그때의 마음과는 사뭇 달라진,
익숙함으로 일그러진 자신의 모습을 말입니다.
잊거나, 잃었거나, 있거나, 없거나.

1953년 초량동에서 처음 화승이 열리고,
東자표, 기차표 고무신으로 신발의 신세계를 열고,
포장재 필름에 이어 태양광 소재 사업 진출은 물론
세계적인 자동차부품 회사가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화승의 처음 역시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화승은 늘 처음을 생각했습니다.
베트남에선 리복, 아디다스 OEM으로
한 켄레의 설렘이 세계인의 가슴을 뛰게 했고,
대한민국과 세계 속에 무역 네트워크를 통해
화승의 숨결을 불어 넣었습니다.
걸림돌과 디딤돌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세상을 잇는 디딤돌이 되도록
60년, 한 길을 걸었습니다.

1953년 처음 문을 열던
화승의 그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스스로에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정직하고, 바른 길을 갑니다.
잊어선 안 되는, 잃지 말아야 하는,
꼭 있어야 하는, 없어선 안 될
그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당신의
그 처음으로 돌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되돌릴 순 없지만 바로 잡을 순 있는
그 희망의 가능성으로 말입니다.

CONTENTS

2014 Spring Vol.34

MAGAZINE VERSION

Open day

04 Open Your Life // 잊거나, 잃거나. 있거나, 없거나

—

Do you remember?

Part#1. Outsight

10 Outside Column // 사라지는 것들은 혼자 떠나지 않는다

12 Photo Essay // 허끝에 맴도는 그날, 추억의 맛

18 Interview // 타이포그래퍼 김기조

22 Chapter Talk // 추억의 그때 그 놀이

—

Part#2. Insight

30 Inside Column //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단상

32 우리 동네를 소개합니다 // 다같이 돌아 마산 한 바퀴

36 공간, 추억 // The Age of NEW ANALOGUE

Do Better Tomorrow

www.hwaseunggroup.com

BULLETIN VERSION

Fly High HWASEUNG

42 화승의 속살 // 글로벌 종합 무역상사, 화승네트웍스

46 화승아카데미 1 // 2014년 화승그룹 교육 로드맵

48 화승아카데미 2 // 2014 화승그룹 신입사원 입문교육

52 화승 포커스 // 화승인더스트리 KNN 희망경제 캠페인

54 워드 프로젝트 // 2014 WATA 동계캠프

58 People Memories // 인사통들의 화승사람 이야기

60 후일담 // 주재기자들의 사보 이야기

62 화승에 이런 일이 1 // 화승그룹, 교육메세나패 수상

63 화승에 이런 일이 2 // 화승R&A, 양산 환경대상 수상

—

Hawseung Reports

64 화승그룹 뉴스

66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



느린 그리움과 남긴 고마움

듣고 싶은 목소리를 들으려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어떤 말을 할지 되뇌며, 연습도 하면서 말이죠.
어느새 사라져가는 우리의 그 느린 기다림이 그리웁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남으면 다음 사람을 위해 끊지 않고
남겨두던 그 따듯했던 마음 마음들.

빠른 것도 좋지만, 정확한 것도 좋지만,
가끔은 더디게 그리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은 혼자 떠나지 않는다

새로운 것에는 촉각을 곤두세우지만, 사라지는 것들에는 무관심한 세상. 그 쓰임이 예전만 못하다는 이유로 자취를 감추는 것들은 결코 혼자 떠나지 않는다. 한 번 사라지면 다시 찾을 수 없는 무형의 재산들을 동반한 채 사라진다.



며칠 전, 조간신문의 작은 기사 하나가 유난히 눈길을 끌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내성천 지키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자율스님을 격려 차 방문한다는 내용이였다. 내가 한숨이나 쉬며 돌아설 때 그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소신을 지키고 있구나.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기사였다.

내성천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강이다. 소백산맥의 남쪽 기슭, 경북 봉화에서 발원해 영주, 안동, 문경을 거친 뒤 예천 용궁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강. 이 내성천은 그렇게 보기 드물다는 모래가 흐르는 강이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금빛 모래알들이 강물과 함께 사르르 흐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이라는 찬사를 아끼지 않는다. 특히 영주의 무섬마을에서 바라보는 강은 넓은 모래밭, 곡선형의 외나무다리와 어울려 빼어난 풍경을 자랑한다.

그런데 이 내성천이 망가지고 있다. 상류에 영주댐을 쌓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더니 머지않아 담수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영주시 평은면과 이산면 일부가 물속에 잠기게 된다. 댐으로 인해 금모래의 흐름을 볼 수 없는 것도 안타깝지만 더 걱정되는 건 물에 잠길 문화유산들이다. 강을 중심으로 생겨난 마을마다 오랜 세월을 머금은 유물들이 지천이다. 터를 잡은 지 400년이 넘는 안동 장씨의 집성촌, 금강마을은 통째로 잠긴다. 마을에 들어서면 문화재급 고택이나 유적들이 곳곳에 눈에 띈다. 운곡서원유허비, 심원정, 인동장씨 고택 등 헤아리기도 어려울 정도다. 인근에는 100년이 넘는 내매교회도 있다. 이들이 모두 물에 잠긴다니. 어디론가 옮겨놓아야 하겠지만 태 자리를 떠나면 어느 정도는 본래 의미가 퇴색된다고 봐야 한다. 그런 이유로 내성천에 발길을 끊은 지 오래다. 사라지는 것들의 뒷모습을 보는 건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곁에 있던 것들이 사라지면, 보던 것을 못 보게 되는 것 이상의 상실감이 따른다. 그 안에 담긴 의미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들이 품고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쌓아놓은 역사와 정신, 그리고 교훈... 밥상 하나로도 예를 들 수 있겠다. 어릴 적엔 밥상머리에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졌다. 둘러앉아 밥을 먹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자연스럽게 전하고, 배웠다. 하지만 함께 밥을 먹는 '밥상'이 사라지면서 가정에서의 교육은 힘을 잃어 가는 것 같다.

밥상을 대신한 '식탁'에서 시도되는 교육은 잔소리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다. 어디 그뿐인가. 예로부터 가마솥은 마을공동체의 상징이었다. 마을에 일이 생기면 주민들은 가마솥을 중심으로 모였다. 일도, 먹는 것도 함께한다는 의미였으리라. 하지만 가마솥이 사라지면서 마을 공동체도 구심점을 잃었다. 구성원 간의 질서나 협업의 틀도 깨져버렸다.

사라져가는 것들의 안타까운 뒷모습을 보는 건 도시라고 다르지 않다. 요즘 서울의 종로1가를 걸어가다 보면 외면하고 싶은 정도로 속을 쓰리게 하는 장면이 있다. 몇 년 전부터 우뚝우뚝 솟아나고 있는 초대형 빌딩들.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그러하듯 나 역시 아쉽기만 하다. 빌딩이 들어서는 곳이 바로 피맛길이기 때문이다. 피맛길은 조선왕조 때 상민들의 전용 길이었다. 즉, 말을 탄 양반에게 하정배를 드리는 게 번거로웠던 민초들이 양반을 피해 육자배기라도 흥얼거리며 지날 수 있는 길이었다. 나름의 역사가 있는 이 피맛길을 중심으로 골목 상권인 피맛골이 생겨났다. 그렇게 쌓인 600년 세월이 시멘트 속으로 묻혀가고 있는 것이다.

그깟 골목 하나 사라지는 것이 무슨 대수냐고, 빌딩을 짓는 게 경제적으로 훨씬 이득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피맛골이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골목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역사적 의미와 술한 이야기, 그리고 오랜 시간이 만들어 낸 훈, 즉 문화콘텐츠가 사라지는 것이다. 만약에 내게 결정권이 있다면 그곳에 빌딩을 짓는 대신 전통 먹거리 골목을 만들었을 게다. 조선 시대의 원형에 가까운 떡집과 전집, 술집을 차리고 민초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상품화하겠지. 분명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청계천이나 남산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정서일 테니 말이다. 🇰🇷

Profile
 기자, 여행작가, 사진가로서 이 땅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의 뒷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10년 가까이 전국을 떠돌았다. 블로그(sagang.blog.seoul.co.kr)에 여행기를 연재하고 있으며, 쓴 책으로는 <사라져가는 것들 잊혀져가는 것들> 1·2권, <문명의 고향 티그리스 강을 건다>, <클레오파트라가 사랑한 지중해를 건다>, <아브라함의 땅 유프라테스를 건다> 등이 있다.



기억 속 허끝에 맴도는 그날,
추억의 맛

'맛'은 혼자서 존재하지 않고 시각은 물론 청각과 후각, 잇새로 씹히는 식감까지 고루 조화가 되어야 완성된다. 그렇기에 복합적인 미각의 기억은 그 순간의 공기와 상황을 모두 담아 하나의 완전한 추억으로 자리 잡는다. 누구에게나 흔하지만 그렇기에 모두에게 특별한 맛의 추억들을 떠올려보자.





이스트처럼 부푼
정사랑스러운 맛

단팥빵 + 흰 우유

조용히 차 한 잔 나눌 커피숍 출입도 어렵던 시절, 가까머리에 모자를 눌러쓴 남학생과 단발머리 곱게 빗은 여학생의 랑데부는 늘 시내 변화가에 자리한 빵집에서 시작되었지요. 보송한 빵의 배를 가르면 까맣게 배어 나오는 단팥의 달달한 향. 하얀 우유는 순진한 여학생의 마음을, 시꺼먼 팥 앙금은 엉큼한 남학생의 마음을 은유한 게 아니었을까요. 휘황한 간판 아래 기계에서 찍어낸 듯 모양 좋은 단팥빵이 즐비한 요즘 빵집 앞을 지나칠 때면 시원스레 손 한 번 잡지 못하고 괜히 빵과 우유만 삼켰던 그때의 청춘이 몸서리쳐지게 그림습니다.

낮설고도 친숙한

여행의 맛

찐 달걀 + 사이다

기차를 탈 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랜 시간 무료함을 달래줄 스마트폰?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해주는 목베개?

칙칙폭폭 익숙한 소리와 규칙적인 흔들림으로 여행길이 지루할 때,

좁고 갑갑한 공간에서 바깥 풍경을 반찬 삼아 적당한 포만감과 청량감을 맛보고 싶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찐 달걀과 사이다뿐입니다. 요즘이야 스넥카의 메뉴가

동네 편의점 수준으로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기차 여행을 떠올리는 순간 혀에 감도는

추억의 맛은 하나뿐이지요. 어쩌면 흔하디흔한 찐 달걀의 익숙한 맛과 입안을

톡 쏘는 사이다의 낯선 맛에 중독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친숙하고도

낯선 맛이 어우러져 입안을 점령한 순간, 기차 창밖으로 보았던 새로운 풍경이 뇌리에

박혀 언제고 떠나고 싶은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맛을 떠올리는 지도요.





몸도 마음도
넉넉한 맛

통닭 + 무절임

어린 시절, 아버지의 월급날이 되면 참 마음이 설렘니다. 누런 봉투 속 두툽한 지폐를 한 장씩 헤아리는 재미는 둘째 치고, 그날이면 으레 아버지의 손끝에 달랑달랑 매달려 오던 고소한 통닭 냄새 때문이지요. 아무 양념도 없이 소금 찍어 먹는 살 맛이 어찌 그리 좋았을까요? 느끼하고 퍽퍽하면 맨손으로 집어먹는 절인 무 하나에 속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담백한 가슴살, 촉촉한 다리살과 부드러운 날개! 그날 제 배를 채워준 것은 비단 잘 튀겨진 통닭 뿐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또 한 달을 잘 버텼다. 다음 한 달도 굶지 않고 살 수 있겠다. 오물대는 자식들의 입을 보며 안도했을 부모님의 마음. 아마도 그 넉넉한 기분 덕분에 우리 마음 또한 그리 부풀었던 게지요.

새로운 날을 약속하는
졸업의 맛

짜장면 + 단무지

일요일은 짜장라면 먹는 날이라는 CF 카피처럼, 우리 인생의 어떤 날들엔 꼭 짜장면이 필요합니다. 이삿날 먼지 쌓인 방바닥에 둘러앉아 먹는 그 맛도 일품이지만 졸업식이 끝난 뒤 가족들과 함께 먹는 짜장면의 맛이 이길 순 없지요. 후배들이 불러주는 '졸업식 노래'를 들으면서도 감동의 눈물이 흐르긴커녕 곧 맛볼 짜장면 생각에 침을 다 흘렸으니까요. 졸업식이 끝나자마자 달려가 먹는 짜장면은 왜 그리 유독 맛있었을까요. 짭짤한 면발에 달달하면서도 느끼한 춘장, 아삭한 단무지. 어쩌면 그날의 짜장면은 한 시절을 마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나를 위한 부모님의 맛있는 선물이었나 봅니다. 🇰🇷



타이포그래퍼 김기조



네모꼴 글자체로 시간과 시간을 잇다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가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극 중 배경음악이
사람들로 하여금 추억을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가 돼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 '글자'라는 매개체로 대중들의 기억저장소를 자극하는
디자이너가 있다. 붕가붕가레코드의 수석디자이너이자 개인 스튜디오
'기조측면'을 운영하는 타이포그래퍼 김기조를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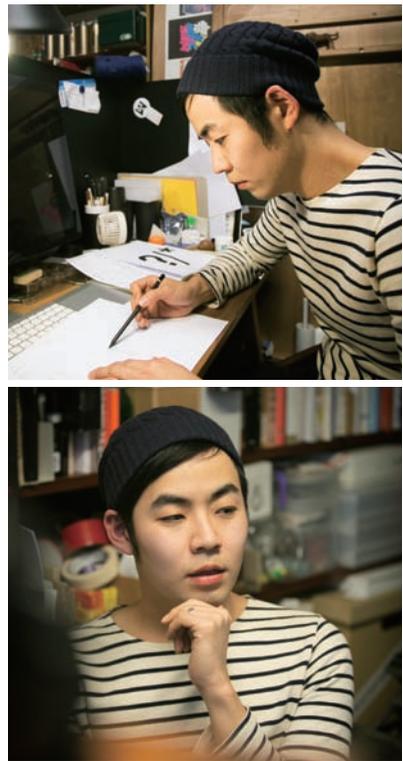
복고는 촌스럽지 않다

인터뷰에 앞서 김기조의 SNS를 살펴보면 꽤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다.
'복고 타령 지겹다'
일명 '김기조체'라고 불리며 복고풍 서체로 대중들의 주목을
받은 그가 이런 글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 만나자마자
그 뜻을 물었다.
"복고라는 소재가 반복적으로 소비되면서 그 뜻이 점점
미완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변질되더라고요. 비례감이
떨어지고 마무리가 어수룩한 디자인이 '복고풍'이라는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는 걸 보니 이걸 아니다 싶었어요."
사실 그도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니었다. 초창기
어느 밴드의 앨범 커버 디자인을 부탁받고 노래를 들어보던
중, 그들이 하고픈 얘기가 '결핍'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키워드를 재미있게 표현할 수 없을까 고민하던 김기조는
손으로 직접 그린 옛날 간판을 모티브로 글자체를 만들었다.
그러나 작업이 끝난 후 어딘가 불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당시의 그 자신이 복고풍의 글자를 '결핍'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했기 때문이다.
"제멋대로 과거의 디자인은 촌스럽고 웃긴 것이라고
단정 지은 것 같아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과거의 글자체를 사용하되 그 시대를 희화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과도기를 거치며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을 갖게 된 김기조는
한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인 '네모꼴'에 주목하며,

글자를 메시지에 힘을 실는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자>, <싫은데요>와 같은 포스터 작품이다. 다소
장난스러울 수 있었던 문장은 굵고 진한 글자체를 만나
보다 진지한 의미를 담은 메시지가 되었다.

익숙한 공기가 주는 새로운 영감

지나간 시간이 먼지가 되어 켜켜이 내려앉은 공간. 김기조의
작업실은 오래된 잡동사니로 가득 차 세 사람이 서 있기에
비좁은 곳이었다. 이름이 알려진 디자이너라면 서울
중심가의 번듯한 건물에 작업실을 가지고 있을 법도 한데,
굳이 번두리의 허름한 건물 1층에 둥지를 튼 이유가
궁금했다.
"집이 바로 근처라는 단순한 이유도 있었지만 익숙한
동네가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도 크게 한몫했어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부터 옆집 복덕방
할머니가 동네 어머님들과 수다 떠는 소리까지 그대로
다 들리거든요. 오밀조밀한 구조에서 느껴지는 정겨움이
작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하고요."
항상 새로운 자극을 추구해야 하는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익숙함은 어쩌면 독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새로운
문명의 이기보다는 상인이 직접 쓴 뽀뽀뽀한 간판,
생활용품 등 보통의 것들에서 영감을 얻을 때가 더 많다.
어쩌면 이것이 대중들에게 낯설지 않은 작품을 만드는
김기조만의 비법이 아닐까.



잊혀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로 차분하게 인터뷰를 이어가던 김기조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을 묻자 신이 난 듯 벌떡 일어나 '장기하와 얼굴들' 정규 1집 <별일 없이 산다>를 꺼내왔다.

"대중적으로 가장 알려진 앨범이자 제 디자인이 파급력을 갖기 시작한 작품이에요. 노래 제목의 글자체를 다 다르게 한 건 각각의 노래가 전부 다른 화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해서였죠."

이 앨범을 디자인할 당시 그의 신분은 군인, 때문에 작업을 끝마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다.

틈틈이 스케치한 다음 휴가를 받아 비로소 완성할 수 있었고, 작업적인 갈증이 다양한 글자체로 표출된 면도 있다는 설명이다. 자칫 잘못하면 너저분해 보일 수 있지만 다행히 네모꼴이라는 한글의 특성상 각각의 문장이 하나의 디자인으로 결합하는 데 무리가 없었다.

"지금의 작품에 비하면 세련미는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힘들게 작업했던 만큼 애착이 가는 작품이죠." 앨범에서 주가 되는 것은 음원이기에 박을 장식하고 있는 앨범 커버는 쉽게 잊혀지기도 한다. 자식 같은 디자인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기억 속에 머무는 것은 없어요. 어떤 것이든 망각과 환기를 반복하면서 존재하죠.”

세상에 내놓은 디자이너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법도 한일. 그러나 그는 그다지 패념치 않는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머무는 것은 없어요. 심지어 애국가라 하더라도 매일 같이 되새기고 살지는 않죠. 어떤 것이든 망각과 환기를 반복하면서 존재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제 디자인을 알게 된 것 자체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딘가에 저의 흔적을 하나라도 남기게 된 거니까요.”

대중들에게 영향력 있는 디자이너가 되기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김기조. 오랜 세월이 지나도 길을 가다 네모꼴의 글자를 보면 문득 그가 생각날 것 같다. 🇰🇷



김기조 작품들

1 첫 개인전 출품작 '고민만 하다가' 2 브로콜리 너마저 하우스 디자이너와 공동 작업을 진행한 '브로콜리 너마저' 정규 2집 3 복고풍 글자체를 처음으로 시도한 '관악청년포크협의회' 정규 1집 4 붕가붕가레코드의 슬로건 5 직접 촬영하고 디자인한 '장기하와 얼굴들' 정규 1집 6 웰페이퍼로 제작된 레터링 '싫은 건'



추억의 나 어릴 적엔 말이야... 그때 그 놀이

“장난감 기차가 칙칙 돌아간다~ 과자와 사탕을 신고서~♪”
 노래에 맞춰 검정 고무줄 사이로 폴짝폴짝 뛰어다니는 여자아이들과 고무줄
 굵을 타이밍만 호시탐탐 노리는 사내아이들. 동무들과의 놀이가 그리웠던
 화승 사우 다섯이, 타임머신을 타고 유년시절로 떠났습니다.



침 살살 발라가며 뜯어야 제맛!

달고나



나는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팔던 군것질거리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 쫄면, 호박꽃맛나 같은 건 구워먹으면 더 맛있었잖아. 친구들과랑 사이좋게 하나씩 입에 물고 집까지 걸어갔지. 그래도 가장 인기 있는 건 '뽑기'였어. 과자에 새겨진 무늬를 바늘로 긁어서 뽑아내면 1개를 덤으로 줬잖아. 침 살살 발라가며 모양대로 뜯는 재미가 꽤 쏠쏠했지? 조심스럽게 해도 난 매번 부서지던데, 핀 없이 똑딱 성공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어. 어떤 문방구에는 국자보다는 작고 수저보다는 큰 '쪽자'에 직접 과자를 만들어 먹을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 쪽자에 설탕을 가득 넣고 녹이다가 물이 되면 소다를 넣어줘야 해. 소다 짙은 젓가락이 설탕에 닿자마자 순식간에 색이 누렇게 바뀌면서 부풀어 오르는 게 마치 마술쇼 같지 않았어? 황갈색으로 변하면 그때부터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난다니까.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푹 떠먹다가 많이들 헛바닥 데어봤지? 흐흐, 집에서 하다가 국자도 꽤 많이 태워 먹었는데. 이걸 그대로 굳혀서 먹기도 하지만 뽑기를 만들려면 철판에 부은 다음 둥근 철판으로 눌러 납작하게 만들어야 해. 굳기 전에 별, 십자가 모양 틀을 과자 위에 올리고 다시 철판으로 누르면 끝! 쉬워 보여도 완벽한 모양을 만드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이것 봐, 아악~ 실패했어. 오랜만에 하니깐 쉽지 않네. 그래도 꼭 어릴 때로 돌아간 것만 같아 기분 좋다.

잃어버린 내 유리구슬을 찾아서

구슬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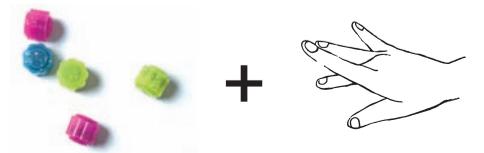


구슬로 짤랑짤랑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골목을 누볐던 게 옛그제 같은데. 우리 동네에선 삼각형 안에 구슬을 넣고 차례대로 맞히는 '세모치기'를 주로 했었어. 구슬을 맞혀서 선 밖으로 나온 구슬을 따먹는 놀이야. 미리 점찍어둔 친구 구슬을 조준하는 순간만큼은 마치 내가 국가대표라도 된 것 같았다고. 구슬을 맞췄을 때는 온몸이 찌릿하더라니까! 어쩌다 구슬을 다 잃는 날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우울했어. 용돈을 탈탈 털어서 다시 구슬을 사야 했으니까. 으하하~ 오늘 정말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손끝에 힘이 잔뜩 실리는데? 자, 이제 진짜로 간대! 그나저나 옛날에 모아두었던 내 유리구슬은 다 어디로 갔으려나...?



살구놀이 할 사람 여기 여기 다 불러라~

살구놀이



들어는 봤나 '살구놀이'. 경상도 지역에선 공기놀이를 살구놀이라고 해. 아마도 살구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지지 않았을까? 믿거나 말거나지만 초등학교 때 쉬는 시간만 되면 교실 뒤편에 모여서 이거 하느라 정신없었어. 다들 조막만한 손으로 몰 찬 제비처럼 착착 던져 받았지. 그러다가 돌을 손등에 올려 다시 낚아채는 '꺾기'에선 모두 숨죽이고 지켜보게 돼. 점수를 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거든! 이 놀이가 단순해 보여도 산수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됐다고. 누가 덧셈, 뺄셈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돌씩 짝지어 셈하는 거잖아. 시범을 보여줄게. 어랏? 이거 내가 늘 갖고 다니던 살구랑은 좀 다른데? 오늘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큰일 났대!

나의 불꽃 딱지를 받아라!

딱지치기



내 딱지 사전에 '대중대중'은 용납이 안 돼. 이왕 하는 거 진지하게 대결하자. 난 어릴 때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는 데도 빠지지 않았어. 뭐든 열심히 하는 타입이었지. 제일 열심히 했던 놀이는 뭐니 뭐니 해도 딱지치기였어. 한 장 한 장 따먹는 재미도 있지만 딱지 만드는 재미도 못지않았지. 딱지 접는 종이 중에선 달력이 으뜸이다? 다들 대개는 신문지로 접었는데, 뽀뽀하고 매끄러운 달력으로 만든 딱지의 벽은 결코 넘어설 수 없었다니까. 지금에서야 고백하지만 아직 날짜도 지나지도 않은 달력을 쪽 찢어 만들다 어머니께 혼도 많이 났어. 딱지를 내리칠 땐 몸무게를 실어서 스냅을 이용해야 해. 그래야 딱지가 잘 넘어가거든. 그렇게 뒤집은 딱지를 모으는 건 아이들의 숙명이었어. 어른들이 돈을 사 모으는 것과 다름없었다고나 할까? 딱지 때문에 울고불고하는 일이 어디 한두 번이었겠어? 하하하~ 그리고 보니 요즘 놀이 문화는 예전과 정말 많이 다르더라. 중학생 아들 녀석은 맨날 방에서 컴퓨터나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동네 놀이터들은 어찌나 험한지. 뭐, 학원이다 뭐다 해서 놀 시간 없이 공부만 하는 아이들만 불쌍하지. 뭐, 우리 땐 딱지며, 땅따먹기며 밖에서 여럿이 어울리며 노느라 해 지는 줄도 몰랐는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놀았는데 돌이켜보니 동무들과 정도 쌓고, 운동도 되고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던 것 같아.



너움직이는 거다 봤어~

무궁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처럼 간단한 놀이가 어딴나?
친구 여러 명 그리고 솔래가 짬을 기둥이나 벽만 있으면 되잖아.
하~ 그땐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온종일
신나게 놀 수 있었네. 좁은 골목길, 뒷산 언덕, 학교 운동장.
그 모든 곳이 놀이터고 장난감이었는데 말야... 🇰🇷



사라진 아이들의 한 뺨 놀이터

동네 꼬마 녀석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텅 빈 놀이터가 공터가 되고, 아이들의 손엔
한 뺨의 놀이터가 작은 전쟁처럼 자리합니다.
해지는 줄 모르고 뛰어 놀던 그 모래 냄새 가득했던 놀이터는
스마트폰에, 학원에 밀려 점점 그 자리를 잃은 터지요.

더 많은 것을 보는 것도 좋지만, 더 쉽게 터치하는 것도 좋지만,
고개를 들고, 더 신나게 흙을 밟으며 뛰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단상



지금 당장, 내 옆자리에 앉아있는 동료의 생일을 떠올려보라. 오래전 초등학교 자녀의 학년과 반을 알고 있는지 묻던 공익광고를 기억한다. 이런 시대에 옆자리 동료의 생일까지 기억하기란 무리일까.

과거를 돌아보면 그 속에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며 무시하는 사람도, 온고지신이라며 전통적인 것과 새로운 것을 고루 알아야 스승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처럼 말이다.

내가 직장 생활을 시작할 당시에는 모든 것이 아날로그였다. 동료 간의 대화나 업무 프로세스를 되돌아보면 하찮은 것으로 치부될 수도 있지만 그때의 사람 냄새가 가끔 그리워진다. 힘들면 서로 위로해주고 소주 한잔 기울이며, 희로애락을 나누며, 모든 스트레스를 날리던 그땐 서로 더 사랑하고 아끼며 살았던 것 같다. 지금을 돌아본다. 우리 너무 무관심한 건 아닌가. 업무에 있어서도 함께 보단 내가 먼저이진 않은가. 예능 프로그램인 '박 2일'의 단골 멘트인 '나만 아니면 돼'. 이 한마디는 우리의 아픈 현실을 단면적으로 담고 있어 안타깝고 또한 허무하기도 하다. 그래서 더욱 더 아날로그 시대가 그리워지는지도 모른다. 사회 초년생 시절 팀원과 같이 소주 한잔 하면서 서로 가까워지고 타부서와 어울려 가까워지고 '아, 이런 것이 회사 생활, 사회생활이구나' 하면서 지내온 시절이었다. 우스갯소리로 소주 한잔하려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만큼 사람이 좋아 더욱 풍성했던 시절이었다. 점심시간마다 족구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양보를 배워가곤 했다. 이런 사소한 어울림이 우리의 문화이며 전통이었던 것이다.

요즘은 퇴근 시간이 되면 각자의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혹은 각자의 자기 계발을 위해 바빠 움직인다. 통근 버스 안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울적한 동료 직원을 위해 우르르 몰려가서 소주 한잔 나누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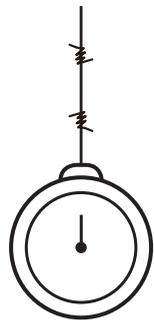
부서간의 업무관계도 많은 변화를 거듭했다. 예전엔 회의록을 자필로 작성해 결재를 받아 복사해 관련 팀에 전달하고, 이를 접수한 부서는 일일이 보관하고 관리했다. 그러나 지금은 심지어 화상 회의에 회의록은 PC로 작성해 관련 팀 이메일로 송부하고(메일을 확인하거나 안 하거나) 만다.

지금도 월급날이 다가오면 출근길이 설레는 직원들이 많은 것이다. <응답하라 1994>의 X세대 이후는 모르는 것이 있다. 월급을 현금으로 두둑하게 받던 시절, 많은 적든 상관하지 않고 한 달에 한번 급여를 받는 것만으로 행복했던 시절. 첫 월급으로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사드리고, 용돈 드리는 소소한 즐거움이 있던 그 시절. 경리부서에서는 현금을 은행에서 찾아와 각 부서 여직원들이 모여 급여를 헤아려 봉투에 넣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아름다웠다. 아내에게 초스피드로 입금이 되어버리는 자동이체의 요즘엔 절대 느낄 수 없는 그 손맛! 이 시대를 살지 않았던 대부분의 후배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게 얼마나 불편한데! 또 구닥다리 옛날 얘기로 후배들을 가르칠텐가!' 물론 지금이 훨씬 편리하고, 살기 좋은 것은 당연하다. 다만 어쩌면 지금 내 옆의 동료에 대한 관심에 대해 한 번쯤은 자신을 되돌아볼 여지는 있지 않은가. 지나간 것들에 대한 추억에 얽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린, 잃어버린 내 사람들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내 사람으로 만들자는 것.

2014년엔 2014년만의 문화가 있다. 그들만의 회사 생활, 사회생활의 문화가 있고, 또한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지금만의 끈끈함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 번쯤은 그 아련한 관계를 해묵은 기억 창고에서 꺼내어 지금의 우리를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소주 한잔의 의미보단 마음 한잔의 가까움과 고마움 말이다.

지난 시간들을 떠올려보면 흐뭇한 미소가 지어진다. 그 시절의 사람들과 지금의 사람들. 그 간극에 대한 영원한 과제는 오직 배려와 관심이 답이라는 것을. 프랑수아 르로르 작가가 쓴 <꾸뻬 씨의 행복 여행> 중 이런 글귀가 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 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잠시 빛나는 베스트셀러 같은 사람보다 스테디셀러처럼 오래 두고 사귄 벗과 늘 함께하기를. 그 사람들이 바로 당신 옆자리의 화승 사람을 잊지 말자. 🇰🇷

The AGE of NEW ANALOGUE



아날로그의 시대는 분명히 지났다. 하지만 세상이 스마트해질수록 아날로그 시절의 감성은 이상하게 더욱 짙어진다. 복고, 혹은 빈티지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리의 아날로그들이 동시대에 맞춰 New Analogue로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사람 냄새가 향기롭게 피어나는 곳을 보고 싶다는 독자의 요청에 따라 <DBT>가 새로 준비한 공간, 추억. 그 첫 번째.

시간이 멈춘 서점, 책장 속 추억은 커피 향을 싣고

덩치가 큰 성인은 들어가기도 힘들 법한 작은 문 뒤로 오래된 책들이 보인다. 서촌의 한 골목길, 낡은 창고마냥 보이던 헌 책들의 무덤은 <대오서점>이라는 오랜 간판을 걸고 있었다. 더 이상 책을 팔진 않고 실내를 카페로 개조해 서점이던 안채를 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대오서점 카페. 1951년에 문을 열어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헌책방인 대오서점은 주인인 권오남 할머니의 의지로 지금껏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책이 귀하던 시절 물려보고 나눠보던 그 시절의 영광에 대오서점 또한 서촌의 명소가 되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정작 책을 사는 사람은 없었다. 고심 끝에 현재는 권오남 할머니의 다섯째 딸 조정원 씨가 가게를 이어받아 카페로 운영하고 있다. 카페 카운터를 지나 안채로 들어가자 ㅁ자 구조의 아담한 한

옥 곳곳에 꽂혀 있는 책을 볼 수 있었다. 당시에는 보기만 해도 치를 떨었던 빛바랜 교과서와 참고서. 단조롭지만 고풍스러운 표지를 입은 그 시절의 책들을 다시 보니 정겹기 그지없다. 장독대와 어우러져 한옥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조심스레 자리 잡은 고서(?)들은 커피향을 가득 머금고 있어 더욱 낭만적이다. 한가로운 오후, 한 손님이 카페에 놓인 클래식 기타를 쥐고 줄을 튕긴다. 소싯적 대오서점의 열혈 고객이었을 법한 중년의 손님이 연주하는 '로망스' 선율에 잠시 대오서점은 현재를 잊고 과거의 추억 속에 잠긴다. 서점의 시간은 멈췄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오서점 카페의 아날로그 향은 짙어져만 간다. 과거의 진한 추억을 허물어버리지 않고 현재와 다시 소통하는 대오서점 카페가 영원히 현재형의 쉼터가 되길 빌어 본다.



서점의 시간은 멈췄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오서점 카페의 아날로그 향은 짙어져만 간다.



이발소라는 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뉴 아날로그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남자들의 새로운 아지트.



되살아난 남자의 로망, 마초들의 부활을 꿈꾸는 이발소

하얀 유니폼에 포마드 잔뜩 발라 모세의 기적마냥 가르마 넘기신 이발사
아저씨들을 기억하는가. 예쁜 이모들이 있는 미용실 가겠다고 이불 뒤집어쓰고
눈물 흘리고 있으면 “남자라면 이발소지” 하며 아들을 상남자의 세계로
인도하시던 아버지의 모습, 이제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구식 스타일이니,
퇴폐업소니, 온갖 수난을 겪으며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로 아저씨들의 전유물이
된 쇠퇴기의 공간이 새롭게 부활하려 한다.

서울 홍대 앞에 위치한 바버샵 <밤므:BOMBME>는 추억의 남성 이발소를
현대적으로 재무장시켜 젊은 층에 새로이 어필하고 있다. 본래 헤어디자이너
로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순시키(백순식 대표) 씨는 이발사였던 삼촌의 영향으
로 이발소의 새로운 부흥을 꿈꿔오다 지난해 찾아온 복고붐과 함께 바버샵을
열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이 미용실 가면 너무 과한 서비스에 괜히 부끄럽고
쭈뼛거리고, 여긴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남성만을 위한 헤어스타일에 더욱 특화된 이곳은 분위기부터 한껏 마초스럽다.
유럽풍의 클래식한 인테리어, 수많은 액자 속에 걸린 멋진 모델들의 스타일이
예사롭지 않다. 이발이라는 한 가지 기술을 고집해오던 장인들의 정신에 남성
뷰티라는 서비스를 더해 쇠퇴기의 이발소 문화를 다시 일으키려는 이 곳
젊은이들의 의지가 보통이 아니다.

과거의 로망과 현대의 기술이 접목된 이곳 바버샵에서는 가끔 진귀한 풍경을
볼수 있다.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와 함께 이발의 순간을 공유하는 것.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이발소를 가던 시절을 지나, 세월이 흘러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마초의 향수에 흠뻑 빠지는 이 새로운 풍경이야말로 클래식한
아날로그의 재창조가 아니겠는가. 🇰🇷



클래식한 인테리어,
액자 속 모델들의 멋진
자태가 남자들의 로망을 한껏
부풀게 한다.



다같이 돌아 마산 한 바퀴



수많은 관광지과 맛집으로 넘쳐나는 블로그, 잡지를 보고 있노라면 가보지는 않았어도 그곳에 대한 환상을 갖게 된다. 하지만 유명하다는 곳일수록 볼 것이 없고, 유명하다는 맛집일수록 직원들의 친절도는 반비례에 가까워 미간을 찌푸리기 일쑤. 그래서! 화승인의 소소한 동네 투어를 해보기로 했다. 목적지는 마산. '아구찜'외에는 어쩔지 생소하게 느껴지는 도시 마산. 화승T&C 사보 주재기자 박재성 대리를 따라 가깝지만 먼 그곳, 마산으로 함께 떠나보자.



용마산정상에서는
마산 시내와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당일치기 여행지로 마산을 소개하기 위해 박재성 대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추억을 되새김질했다. 사실 박재성 대리의 고향은 통영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 이사를 와 마산 시민이 된 지도 15년. 자신이 자란 도시라 애착도 많을뿐더러 마산시민도 잘 모르는 본인만의 명소(?)가 곳곳에 있다.

아침 일찍 도착한 곳은 3.15 국립기념관.

평일인데다 기념관이라 그런지 아주 조용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런데 3.15...? 대한민국 근대사 속 수많은 기념일이 있지만 3월 15일이란 날씨는 도저히 기억속에서 찾을 수 없었다.

“조용한 곳에서 역사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여기 올 때마다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슴 답답하든 여기 온다입니까. 여기 함보이소, 김주열 열사라고 알지예? 어? 몰라예...?” 1960년 3월 자유당 이승만 정권의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곳 마산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곤 아차 싶었다. 4월 혁명의 발원지라고도 불리는 이곳에 대한 지식 부재가 갑자기 부끄러우면서도 단순히 어르신들의 산책 코스로만 이용되는 듯한 인상에 가슴 한쪽이 씁쓸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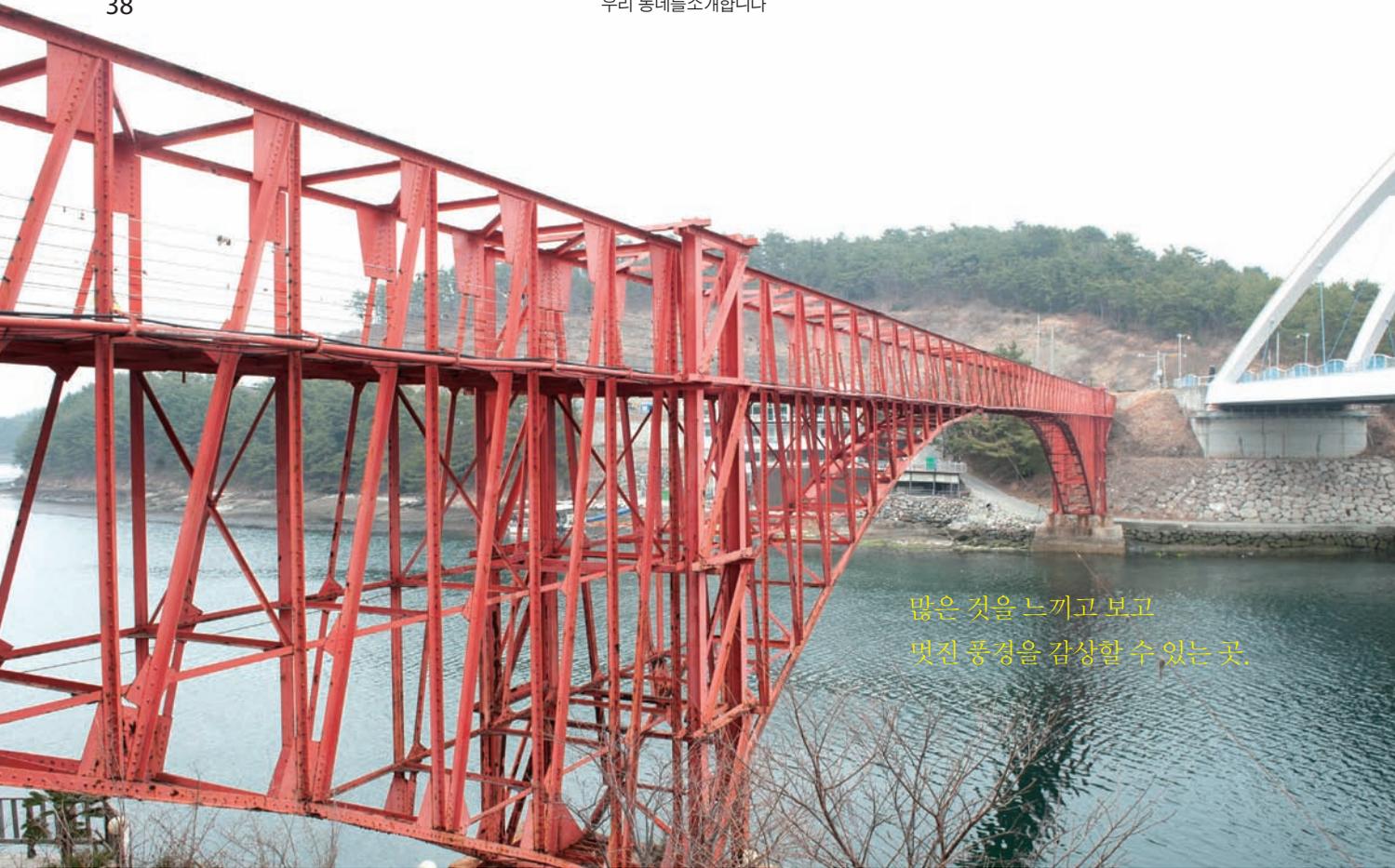
용마산으로 장소를 옮겼다.

마산 시민이나 관광객은 대부분 무학산으로 간다고 했다. 무학이라... 익숙한 단어라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 먼발치에 '무학'이라는 주류회사 건물이 보였다. 아! 그래서... 각설하고! 박재성 대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며 자동차로 어렵지 않게 산에 올랐다. 정상 근처에서 내려 전망대에 오르니 마산 시내와 앞바다, 마창대교가 한눈에 들어오는 장관이 펼쳐진다. 청소년 시절 뽀글뽀글 머리 화가 밥로스(Bob Ross) 아저씨의 그림 같은 풍경이다. 방황하던 고등학생 시절 친구와 자주 올라왔다며 지난날을 회상하던 박재성 대리의 배에서는 어느덧 포르륵 배고픔을 알리는 알람이 울렸다.



화승T&C 박재성
대리가 소개하는
마산 명소





많은 것을 느끼고 보고
멋진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



**구불한 길을 빙빙 돌아 도착한 곳은 '석양'이라
는 철판돼지고기집이었다.**

바다 옆에 위치한 그곳은 큰 화로 위에 철판을 두고 숙성시킨 돼지고기와 김치를 화려한 불쇼와 함께 구워먹는 곳이다. 돼지고기에 대하구이를 곁들여 식사하는 내내 화로의 뜨거움에 다리를 동동댔다. 더운 날에는 밥 먹다 땀까지 흘릴 듯하다. 이곳에 올때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식사에 곁들이는 쌈 야채 등은 가게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손님이 직접 갖고 와야 한다. 맛있는 고기와 싱싱한 대하 그리고 화려한 불거리가 그나마 시크한 직원들의 서비스와 각종 채소 부재의 섭섭함을 달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밥을 볶아 먹으려면 고기를 다 먹기 전에 함께 볶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고기는 무조건 2분 이상 주문 가능하다.



먼서 옛 연육교는 자동차가 통제되고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 탈바꿈했다. 난간마다 꼭꼭 채워진 사랑의 자물쇠들이 비 오는 봄날의 정취를 한껏 더 낭만적으로 만들어 주었다.

**부지런히 움직여 도착한 다음 코스는
커피숍 '지중해'.**

오늘 같이 비가 오는 날이면 빗소리를 들으며 창밖의 바다와 커피숍 주인장의 취미인 수석컬렉션을 함께 만끽할 수 있어서 좋다. 창 너머 경치가 좋기로 유명한 곳이라 평일임에도 손님이 많았다. 따끈한 커피 덕분에 빗물에 차가워진 손이 금세 따뜻해졌다.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동네, 꼬부랑 벽화 마을.

마산시와 경남은행의 지원으로 시간이 멈춘 듯 스러져 가는 판자집과 꼬부랑 골목길을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경로당에서 나오시던 할머니 한 분이 담배를 태우며 사진을 찍느라 정신없는 우리를 낚시 바라보고 계셨다. 벽

소화를 위해 저도 연육교로 향했다.

아침부터 심상찮더니 어느새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마산의 저도와 육지를 잇는 연육교는 한때 차량도 드나드는 육지와 섬의 연결 고리였다. 하지만 2004년 신(新)연육교가 놓이

화로 유명한 만큼 낯선 이들에게 익숙한 모습. 하지만 엄연한 거주 지역이므로 가능하면 조용히 구경하도록 하자.

**마지막, 박재성 대리의 최고 단골집은
떡볶이 노점이었다.**

처음에는 40년 넘은 노점이라니 믿지 않았다. 강산이 4번 바뀌는 동안 노점을 운영하는 게 가능한 일일까? 하지만 박재성 대리의 손에 이끌려 간 마산 창동 시장의 노점엔 작은 체구에도 빠른 손놀림으로 떡볶이를 휘젓고, 찌집이(부침개)를



굽는 역사의 산증인이 계셨다. 22살에 노점에서 홍합을 팔던 아가씨가 지금은 63살의 할머니가 되었다. 길에서 보낸 41년의 세월에도 주인 할머니의 얼굴은 참 고우셨다. '마산' 하면 부림시장 6·25 물떡볶이가 유명하지만 박재성 대리가 추천하는 진짜 떡볶이 맛집은 창동 농협방면 입구의 첫 번째 노점인 바로 이곳이다. 정구지 찌집(부추전)에 떡볶이 양념을 비벼 먹는 맛 또한 일품이다. 손을 쉬지 않으면서 도 손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주인 할머니의 푸짐한 정은 덤이다. 🇰🇷

마산 한바퀴 마산에 갈 일이 있다면 잊지 말고 박재성 대리의 동네 투어 코스를 즐겨보자.





포장하지 않은 화승의 사람냄새

힘들면 소주 한 잔, 나누면 어느새 잊는 마음들.
잊어선 안 될 것도 있지만 잊어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힘겨운 시간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는 화승 사람들의
넉넉한 저녁 시간, 그 안엔 포장하지 않은 훈훈한
마음들로 가득합니다.

좀 바쁘지만, 가족이 더 소중한지만,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 함께하는
화승 가족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포장하지 않은 화승의 사람냄새

힘들면 소주 한 잔, 나누면 어느새 잊는 마음들.
잊어선 안 될 것도 있지만 잊어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힘겨운 시간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는 화승 사람들의
넉넉한 저녁 시간, 그 안엔 포장하지 않은 훈훈한
마음들로 가득합니다.

좀 바쁘지만, 가족이 더 소중한지만,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 함께하는
화승 가족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 빼고, 다 갑니다

글로벌 종합무역 상사, 화승네트웍스



촬영협조 인천항만공사, (주)한진

화승에 웬 무역회사? 화승 협력업체야?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실듯하다. 2006년에 설립했으니 올해로 딱 8살이 되는 화승그룹의 글로벌 종합무역 계열사, 화승네트웍스. 화승그룹의 모든 사업군을 아우르며 철강사업, 일반무역사업, 섬유사업, 통합구매사업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믿음이 곧 이름이 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답게 2020 그룹비전을 향해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화승네트웍스의 속살을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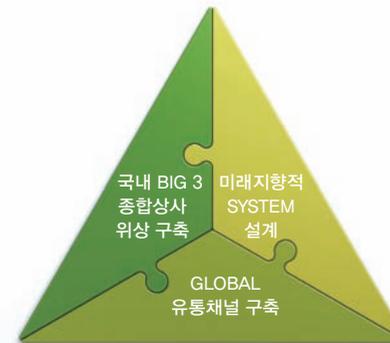


아직은 낯선 무역 대동맥, 화승네트웍스를 해부하다

2006년 부산, 서울을 기점으로 화승그룹의 종합무역 상사로 출범한 화승네트웍스는 세계로 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큰 도약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연평균 160%에 육박하는 성장을 거듭해온 화승네트웍스는 준법감시팀,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필두로 관리본부, 철강, 일반 무역팀을 보유한 유통무역본부, 섬유사업본부, 통합구매사업본부의 조직으로 글로벌 네트워킹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외 굴지의 철강메이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해외 수출 및 국내 수입 후 유통 판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유통무역본부의 철강팀은 활발한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또한 국내의 철강업체의 수출입을 대행하면서 동반성장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기반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일반 무역 사업팀은 식품, 사료, 광물, 신재생 에너지 등의 다양한 아이템과 폭넓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공급함으로써 고객만족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Great Innovation 2020



섬유사업본부는 다각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국내 원사 및 원단을 미국, 남미, 유럽 등으로 수출하고, 해외원사 및 원단을 제3국으로 판매하는 삼국간 무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원사 및 원단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의류 OEM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가며 섬유시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구매사업부는 국내외 그룹사 및 협력사의 원·부자재, 설비 통합구매 및 조달, 원·부자재 유통판매, 기업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기업 운영에 필요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유통채널 구축, 국내 Big 3 종합상사 위상 구축, 미래지향적 시스템 설계의 트라이앵글 2020 비전을 마련한 화승네트웍스의 내일이 더 기대된다.

화승네트웍스 사사이드 정수련, 김성은, 박규안을 만나다.

섬유 원단회사에서 2012년 이직해 섬유사업본부에서 국내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수련 대리. 본부장, 팀장, 팀원들 간의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회사 생활로 화승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는 그에게 화승은 좋은 인연을 만나고, 업무뿐만 아니라 인생을 배우는 고마운 곳으로 각인되어 있다. 꼼꼼한 성격에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류찬상 팀장을 좋은 화승 사람으로 첫 손에 꼽는 그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위기란 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단다. 원사, 원단뿐만 아니라 폭넓게 업무를 확대해 매출을 올리는 섬유사업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비전을 가진 그의 2014년을 응원한다.

2012년 그룹공채 17기로 입사한 유통무역 본부 일반무역팀의 김성은 사우는 수입대행 및 출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두려움과 설렘으로 시작했던 첫 출근 날을 기억하며 5년 후 어떠한 아이템이 생기든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로 화승에 꼭 필요한 믿을 수 있는, 안심이 되는 직원이 되고 싶단다. 전문적 업무 지식은 물론 실수투성이었던 자신을 믿고 이끌어주는 같은 팀 박성희 대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그는 업무 흐름에 정통하고, 솔한 실무 경험을 통해 영업전문가로 거듭나기를 꿈꾼다. 웃음을 잃지 않는 좋은 사람, 박규안 대리. 동분서주하며 화승네트웍스 사람을 챙기는 그는 늘 You first다. Do Better Tomorrow - 화승네트웍스의 내일을 여는 시작점. 인천항으로 동행한 짧은 시간, 세계를 찾았던 화승네트웍스가, 세계가 찾는 화승네트웍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바다에 띄운다. 🇰🇷

Road to Hwaseung 2014년 화승그룹 교육 로드맵

2014년 갑오년(甲午年) 화승그룹 교육의 주요 특징은 HR의 주요 책무인 경영성과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 및 창의성 발달을 강조한 점이다. 한국적 경영 3.0시대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자기 주도적 학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금년 그룹 교육의 주요 과정을 살펴보면, 승진자 교육은 직급에 따른 단계적 그룹 리더십 파이프라인(Leadership Pipeline)과 커뮤니케이션 파이프라인(Communication Pipeline)에 따르는 필수교육으로 진행된다.

선택교육은 직급별 계층역량과 공통역량 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직무역량 교육의 경우 직급 및 역량 수준에 따라 구성되어 본인의 수준에 따른 교육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또한, 핵심인재 유형 중 각 계열사에서 선발한 이들을 중심으로 사내강사그룹을 육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처음 시행되는 사이버 교육에 필수교육 이수확점을 부여하여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방식 형태의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는 구성원 개개인의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 Plan)에 의해 그룹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회사의 비전 달성과 구성원의 성장 발전에 필요한 역량 향상 활동이 자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인개발(Individual Development Plan) 구축 및 학습조직개발(Community of Practice)을 통해 광범위한 교육을 벗어나 현장이슈, 문제해결 중심으로 나아가갈 예정이다.

앞선 트렌드의 흐름을 읽고 최적화된 교육으로 화승그룹 교육 강화에 단단한 기틀을 만드는 일, 화승을 화승답게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올해 교육의 최종 목표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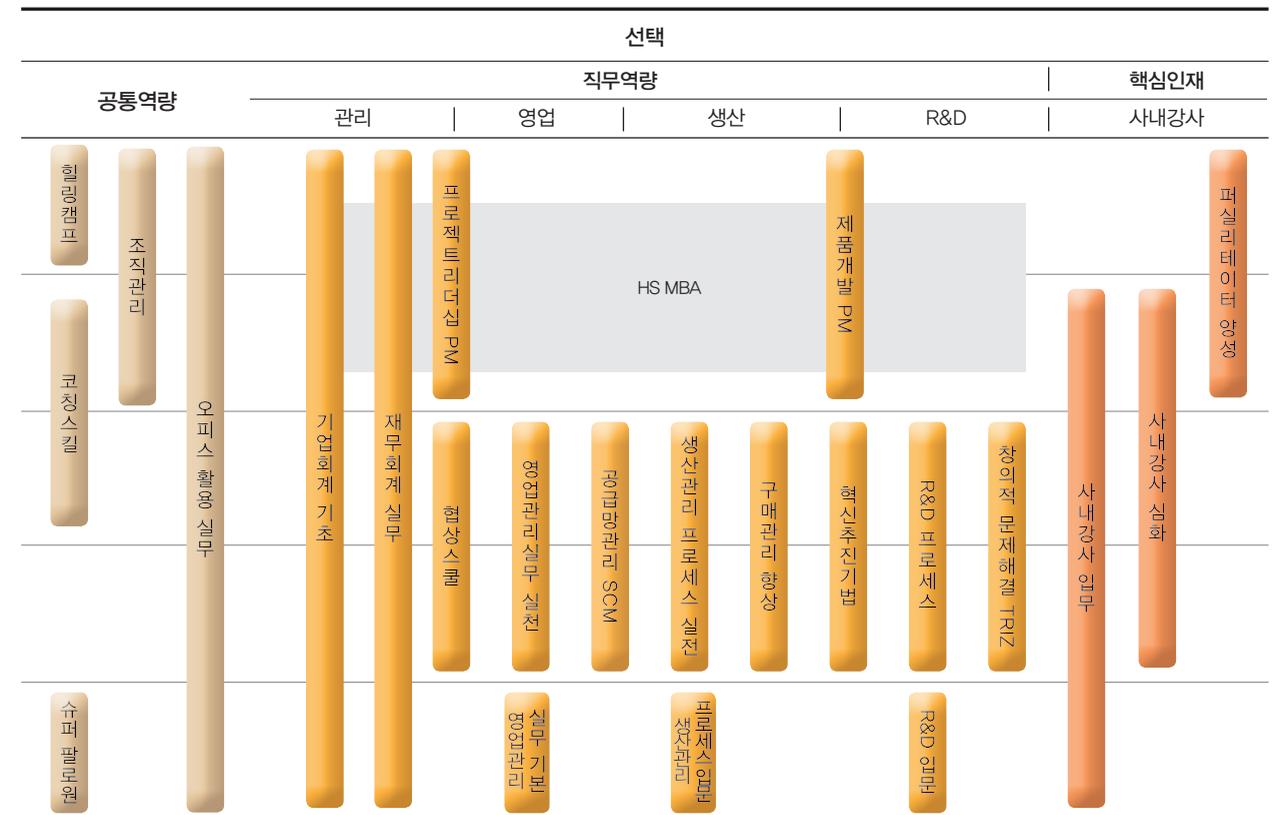
2014년에는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화승을 이끌고 싶었다. 전반적인 기획을 하고 그 액션 플랜에 따라 교육의 초점을 리더십과 계층 역량 교육에 두었다. 이 외에도 단계적 직무교육 시행과 교육생 스스로가 원하는 과정을 직접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시스템 또한 시도하였다. 작년 그룹 교육을 직접 연차별 필수교육으로 시행한 것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이기도 하다.



■ 주요교육 추진방향

직급	필수	
	리더십 역량	계층 역량
부장		2014 경제전망 트렌드 신사업 성장
차장	차장 승진자 HWASEUNG WAY 커뮤니케이션 & 리더십	전략 및 정책수립
과장	과장 승진자 HWASEUNG WAY 커뮤니케이션 & 리더십	문제해결력 강화 성과관리 프로세스
대리(계장)	대리 승진자 HWASEUNG WAY 커뮤니케이션 & 리더십	경력 개발과 경력 설계 전략적 기획
사원	사원 승진자 HWASEUNG WAY 커뮤니케이션 & 리더십	업무수행 스킬 업 비즈니스 문서작성

* 인터스트리 계장의 경우 대리직급 교육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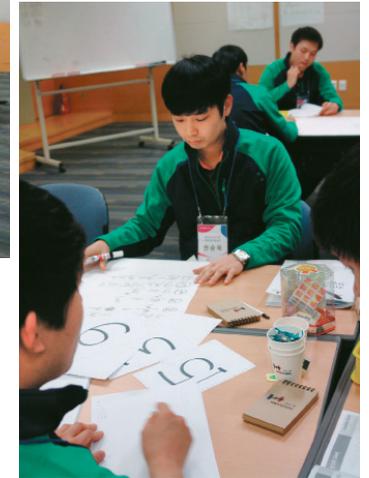




2014 화승그룹 신입사원 입문교육

세상을 바꿔 놓을 화승의 힘

2014년 새해를 깨우는 화승의 '미래'들이 경주 드림센터에 모였다.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간 진행된 2014 화승그룹 신입사원 입문교육.
설렘을 가득 안고 온 그들은 그렇게 서서히 화승에 물들고 있었다.



화승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27명 새내기들.

낮선 얼굴들과 마주한 첫 대면의 자리는 어색했지만 모두가 '화승인'이라는 생각에 이내 경계가 허물어졌다. 그렇게 긴장과 기대가 가득한 공기 속에서 그룹 회장실 박동호 전무의 격려사로 2014 화승그룹 신입사원 교육의 첫 포문을 열었다.

이번 교육의 주인공은 2013년 채용된 수시모집 신입사원들로 이루어졌다. 어색한 시간도 잠시, 그룹 소개와 함께 진행된 짝 찬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그들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공채 18기 선배의 축하 메시지와 조언을 들으며 신입사원들은 각자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했다. 실전에 필요한 업무지식과 유연함을 강조한 선배의 조언에 신입사원들은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은 모습이였다. 이어진 화승골든벨 시간, 총 30개의 문제를 풀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지만 결국 골든벨을 울린 이는 아무도 없었다. 아쉬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지만 새내기다운 패기와 격려로 이조차도 즐거운 모습이였다.

2014년 신입사원 입문교육에서는 이전과 다른 프로그램 또한 시도되었다. 신입사원들이 직접 만든 기획안을 바탕으로 PD, 작가, 카메라 감독이 되어 완성한 영상을 통해 세상에 한 번뿐인 화승필름페스티벌을 진행한 것이다. 오직 신입사원들의 힘으로 탄생한 3편의 영상물은 기대 이상의 완성도를 자랑했다. 화승그룹 사업군 전체를 아우르는 신입사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머지않아 세상을 바꿔놓을 화승그룹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화승 깨어오라! 화승에 도전하라!



다른 출발선에서 서 있지만 훗날 오늘의 아름다운 추억을 안주삼아 소주 한잔 기울일 날이 오리라 믿는다.



당신은 참 관참은 사람입니다

- 1 비주얼 퍼포먼스를 손수 준비하는 신입사원들의 재기발랄한 모습.
- 2 몸과 마음을 릴렉스~ 힐링 요가 시간.
- 3 비주얼 퍼포먼스에서의 HWASEUNG 카드 섹션.
- 4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Tea Time~
- 5 가벼운 마음으로 경주 남산을 오르는 패기의 신입사원들.

넷째 날 이른 아침, 강의장에 스산한 기운이 감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모인 그들은 간단한 체력단련(?)과 함께 산행을 준비했다. 목표는 해발 468m의 경주 남산 정상. 가벼운 마음으로 뒷동산 마실 다녀오라던 신입사원 교육 총괄 안진우 과장의 말을 비웃듯이 거친 산세로 인해 등산 코스는 산보가 아닌 암벽 등반 수준의 산악 훈련이 되고 말았다. 가장 난이도 높은 코스로 등반하며 한겨울 굵은 땀방울과 함께 목청 터져라 구호를 외치던 신입사원들은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동기애'와 '나눔'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다.

꽃단장을 하고 머리카락 한 올에도 영혼을 불어넣은 후 비장하게 준비한 비주얼 퍼포먼스. 하지만 음악에 맞춰 난생 처음 추는 군무에 몸 따로 마음 따로였다. 10대 못지않은 열정으로 연습을 거듭한 끝에 완성된 비주얼 퍼포먼스는 교육 첫날부터 밤잠까지 설쳐가며 준비한 노력의 산물이기에 더욱 뜻 깊었다.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한 마디, '동기'. 지금은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 다른 출발선에서 서 있지만 훗날 오늘의 아름다운 추억을 안주삼아 소주 한잔 기울일 날이 오리라 믿는다. 밝은 미소와 함께 성장하는 27명의 화승그룹 신입사원들, 당신들은 참 관참은 사람입니다. 🇰🇷





힘내라 당신, 힘내라 우리!

부산경남방송 KNN 희망경제 캠페인 촬영 현장 - 화승인더스트리 편



깨끗한 작업 환경과 분업화된 직원들의 숙련된 손놀림을 보며 화승인더스트리의 우수한 품질이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1969년 (주)풍영화성으로 시작해 5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화승인더스트리는 신발 제조 회사로 시작했지만 곧 필름 분야로 사업 다각화에 성공,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 2010년부터는 태양 전지 소재 사업에 뛰어들어 글로벌 생산 및 마케팅 체계 구축에 성공해 태양 전지 소재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다. 정밀화학 제조기술과 노하우로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 받는 세계 최고의 필름제품 전문기업 화승인더스트리.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해 나갈 이들의 내일이 기대된다. 🇰🇷



2월 14일, 오늘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필름제품 전문기업 화승인더스트리에서 2014 화승그룹 연중 캠페인을 촬영하는 날. 아침부터 화승인더스트리의 현장이 분주하다. 부산 경남 대표 방송 KNN 촬영팀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선 화승인더스트리의 모든 것을 담았다. 세계 시장에서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희망경제 캠페인'의 주인공에 선정된 화승인더스트리. 실 새 없이 돌아가며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거대한 기계들, 화승인더스트리의 대표 필름 생산 현장에서 촬영이 진행되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유아용 기저귀와 생리대 그리고 과자와 담배 포장지는 물론 산업용 포장지, 라벨 속에도 화승인더스트리의 기술이 오롯이 녹아 있다.



자원봉사, 왜 합니까?

봄엔 싹이 움튼다. 작은 새싹은 자라 열매가 되고, 열매는 움츠렸던 겨울을 지나 또다시 세상이 따스해졌음을 알린다. 세상이 따뜻해지는 건, 따뜻한 열매를 맺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름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화승그룹이 후원하는 제10회 WATA(세계예술치료협회) 동계 캠프에선 이처럼 추운 겨울 속에서도 따스한 마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의 고군분투를 볼 수 있었다. WATA 캠프의 또 다른 주인공이자 보물인 자원봉사자. 이들은 왜 WATA와 함께 고생하며 봉사를 하는지, <DBT>가 어찌면 당연할 수도 있는 질문을 던져보았다.



내 20대의 추억

새로운 치유의 꿈

변산소동의 기억

절로지만 행복한 동행



화승그룹과 함께하는 세계예술치료협회 제 10회 겨울가족캠프! <년 특이>

YOU are Special!



WATA에서는 아이들과 부모, 봉사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치유의 행복을 맞본다.



W



A



T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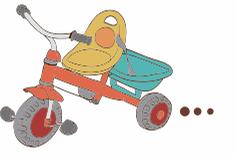
Jang Byeongdu

장병두(29)

수줍은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갑작스런 현장인터뷰에 많이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질문에 귀 기울이고 고민한다. 이전부터 많은 봉사 활동을 해왔었지만 WATA와의 만남은 사실 인터넷에서 취업 준비 커뮤니티를 통해 소위 말하는 '봉사 스펙'을 찾던 도중이라고 말한다. 2009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인연을 맺어온 WATA. 오랜 기간을 함께해온 덕에 캠프에서 그의 역할은 매우 빛난다. 이번에도 취업준비로 한창 바쁜 와중에 협회 측의 간곡한 부탁과 더불어 캠프에 끌려(?) 왔다고 한다. 사실 봉사자들이 짝지 아동과 1박 2일 동안 함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아이들의 격한 사랑을 이틀 동안 고스란히 느끼다 보니 상당히 고되지만 치료를 통해 매년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만둘 수가 없다고 한다. 병두 씨 또한 20대의 청춘을 WATA와 보내며 가슴 속에 새긴 자원봉사자라는 명함이 매우 자랑스러운 것이다.



Heo Yun



허윤(만30)

거친 사람인 줄 알았다. 이틀 동안 스태프로 활동하는 그녀의 안내 멘트가 온 캠프장을 찌렁찌렁 울렸다. 배우 허윤 씨는 병두 씨와 마찬가지로 세계예술치료협회의 시작과 함께한 WATA 봉사자들의 터줏대감이다.

수년 전 작은 연극 집단에 소속되어 있던 그녀는 우연히 맺은 WATA와의 인연을 그리 특별하게 생각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당시 첫 짝지 아동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친구였다. 당시 1박 2일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캠프가 끝나고 헤어지기 직전 그 친구가 어깨를 툭툭 치며 "수고했어"라고 던진 한 마디에 허윤 씨가 변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때 나는 아동과의 작은 소통이 그녀의 가슴을 울려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이다. 봉사자로서 활동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자신이 치유 받는다는 허윤 씨. 아이들과의 작은 소통은 배우로서의 표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자연스러운 소통의 중독에 빠진 그녀와 WATA의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Kim Somin



김소민(26)

참가 가족들이 WA팀, TA팀 편을 나눠 다양한 게임을 하는 WATA 동계 캠프의 꽃, 가족대항전. 어딘가에서 목청 터져라 들려오는 응원소리가 있었다. 바로 소민 씨였다. 허윤 씨와 함께 대학로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2013년 아싸라비아 바자회부터 WATA와 함께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봉사자가 아닌 세계예술치료협회 인턴으로 참여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본업이 배우인 만큼 연극을 접목한 치료·교육 분야로 경험을 쌓으며 WATA를 통해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그녀는 이번 캠프에서 새롭게 준비된 부모 마사지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한다. 아이들을 돌보며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님들이 잠시 잊고 있었던 부부간의 스킨십으로 조금이나마 활력을 되찾아가는 모습에서 '이것이 바로 WATA 가족 캠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WATA에서는 아동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는 물론 부모, 봉사자, 스태프 등 참여한 이들 또한 이곳에서 치유되어 돌아간다고 소민 씨는 믿는다. 그녀가 꿈꾸는 모두가 치유되는 세상,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 WATA다.

Jeong Chaeyeong



정채영(28)

친구의 권유로 작년부터 시작된 WATA와의 인연. 캠프기간 내도록 그는 싱글벙글이다. 호쾌하고 듬직한 그의 웃음에서 긍정의 기운이 잔뜩 묻어난다.

사실 작년 여름 캠프에 짝지를 맡았을 때만 해도 그는 웃지 못했다고 한다. 수많은 예술 치료 프로그램이 기획된 여름 캠프였지만 정작 짝지 아동은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어 계속 행사장을 맴돌기만 했다. 협회에서도 그의 고생을 알고 올해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채영 씨는 웃으면서 돌아왔다. 자신은 캠프가 진행되는 기간만 고생하면 되지만 돌아가서 계속 아동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짝지 아동의 형제나 부모님들을 생각하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컴백한 채영 씨가 맡은 짝지 아동, 이번 동계 캠프도 쉽지 않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형제가 되어 1박 2일을 함께하며 긍정의 웃음꽃을 피운 그는 캠프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듯했다. 🇰🇷🇺🇸

끈끈한 초코파이 정신. 화승R&A.

통근 버스 놓칠까봐 바짝 긴장하고, 대기하던 화승R&A 본관 2층 접견실에서 갖 자대배치를 받은 이등병마냥 바짝 얼어있던 안준철 사원이 화승 사람이 된 지도 벌써 1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했던가요. 이제는 어엿한 화승R&A 인사과장으로 사람 마음까지 관리하는 HR 베테랑이 되어 더 크게, 더 멀리 화승을 봅니다. 그는 주어진 일은 가능한 빨리 자신의 일로 만들고, 늘 배우는 자세로 셀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는 노하우를 전합니다. 포털 사이트의 업무별 카페에 가입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같은 분야의 선경험으로 인적 자산과 더불어 자신만의 업무 스킬을 높여야 한다고요.

현장형 기자처럼 전방위적으로 늘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열혈 인사과장 준철. 그에겐 유지한 님이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2003년 입사해 2005년까지 2년 남짓 근무한 분이지만 입사 동기들에 비해 조금 늦게 시작한 사회생활, 양산 본사의 해외영업팀 입사 후 출근과 동시에 본관 사무실을 돌며 “안녕하세요! 유지한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하루 업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현지호 부회장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미스터 안녕하세요’는 요즘 잘 있냐”고 안부를 물어봤을 정도라고요.

2년여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퇴사 후에도 서울에서 만나 식사도 하며 안부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요즘 뜬혀져 결혼식 때 참석하지 못한 것이 못내 미안하다며 마음을 전합니다.

정이 가득한 초코파이 정신과 평균 이상의 애사심으로 톨톨 뭉친 화승R&A - 인사과장이라 행복하다는 그는 모두가 득을 보려고 하니 문제라며, 조금은 손해 본다는 마음으로 살면 그것만으로 힐링이 될 거라 소신을 전합니다. 마음 속 계산기는 타임캡슐에 묻어두고, 관용과 정도(正道)를 늘 가슴에 새기며 생활한다면 지혜롭고 현명한 화승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요.

조근조근 입담을 푸는 그에겐 직원들 사이의 인간관계를 담은 자신만의 이론이 있습니다. 업무 관계로 시작해서 업무관계로 끝맺음하는 직원(B2B), 업무 관계로 시작해서 인간관계로 연결되고 있는 직원(B2C), 업무관계를 기본으로 인간관계까지 연결된 직원(C2C)이 바로 그것이지요.

업무를 기본으로 인간관계까지 연결된 C2C의 행복한 직원들이 점점 늘어났으면 한다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안준철 과장에게서 때 묻지 않은 화승R&A의 끈끈한 초코파이 정신을 봅니다. 어느새 화승 사람으로 완전히 행복한 그를 봅니다.



참 인복 많은 회사. 화승인더스트리.



낮선, 어색한, 불편한, 설레는, 그 걱정 가득했던 첫 출근 날을 잊을 수 없다는 화승인더스트리 총무팀 성용현 차장은 화승 밥을 먹은 지 벌써 14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14년 한결같이 인사통으로 화승 사람을 관리해온 그의 잔뼈는 선배들이 쌓은 노하우를 제대로 훑치는 기술에서 비롯됩니다.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산지식을 선배들에게 배우고, 또 그것을 이제는 후배들에게 하나둘씩 퍼주는 선배가 되었습니다.

2013년 입사한 B사원을 기억합니다. 화승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가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해 아쉬웠지만, 다른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해 극적으로 화승 사람이 된 B사원. 지금은 회사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인재로 소임을 다하고 있어 자신이 다 뿌듯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경미한 교통사고로 몸이 힘들 텐데, 빠른 쾌유를 바란다는 따뜻한 위로도 잊지 않습니다. 신입 시절 영업팀에 근무하셨던 김승태 팀장과 육두문자까지 나누며 싸웠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까다롭고, 철저하기로 소문났던 그이기에 이제 죽었다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팀의 고충을 이해해주셔서 더욱 고마웠던 분이셨습니다. 가끔 서울사무소에 가면 늘 환하게 웃어주시던 그가 얼마 전 본부장으로서 퇴사하던 날 한 통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너랑은 꼭 소주 한잔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에겐 가슴에 새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산관리부문에 지원하기 위해 이력서를 들고 처음 화승인더스트리를 방문했을 때, 경비실 뒤편 작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으시던 분이 총무팀에 입사할 생각이 없냐고 물으셨지요. 정중히 거절했지만 결국 총무팀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때 마주했던 분이 바로 당시 총무팀장, 지금의 이혁근 본부장이었습니다. 입사 후 결혼을 하고, 처음 내집마련을 준비하며 500만 원이 부족해 고민하고 있던 찰나, 얘기를 전해 들은 이 본부장이 덜컥 500만 원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있나. 뭘 믿고 나에게 선뜻 호의를 베풀어 주셨을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화승 사람입니다.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에게 꼭 빼먹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승이란 회사는 참 인복이 많은 회사다.’ 선배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인지, 회사에서 채용을 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화승인더스트리는 유독 성실하고 정이 많은 분들로 가득합니다. 바로 그들이 화승의 그 기나긴 세월을 지켜온 원동력이라 그는 생각합니다. 귀가 열린 화승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는 성용현 차장은 나의 얘기보다 상대방의 얘기 속에서 해답을 찾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참 인복이 많은 회사, 화승인더스트리에 참 인복이 많은 인사 차장, 성용현. 그를 인사통으로 둔 화승인더스트리도 참 복이 많은가 봅니다. 🇰🇷🇰🇷

화승네트웍스 in <DBT>

계절이 변하면 어김없이 새로운 소식을 한 움큼 담아오는 화승그룹 사보 <DBT>. 계열사 주재기자들도 3개월에 하루는 한자리에 모여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누며 회의를 가집니다. 사실 그동안 저에게 주재기자 회의는 그리 편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주재기자가 되고 1년 남짓, 화승네트웍스에 인원이 적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기삿거리 한 번 준비하지 못한 채로 자리를 지키는 일이 영 곤혹스럽습니다.

이번 봄호 사보회의도 이렇다 할 화승네트웍스 기사 콘셉트를 잡지 못하고 야속하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술자리에서 만들어진다는 명언(?)처럼 회의가 끝난 후 식사 자리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홍보팀의 독려와 더불어 약간의 술기운으로 '그래, 2014년 봄호는 나 스스로의 네트워크 특집호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홍보팀의 든든한 지원도 약속받았습니다.

많은 고생 끝에 실린 이번 기사를 통해 <DBT> 독자들이 화승네트웍스를 더욱 잘 알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인원 섭외부터 날짜, 촬영장소 선정까지 뭐 하나 매끄럽게 풀리는 게 없어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참석 인원이 몇 번이나 바뀌는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2월 20일, 인천항을 배경으로 섬유팀 정수련 대리, 일반무역팀 김성은 사원이 참여하여 직원 촬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준 동료들과 바쁜 시기에 업무공백을 너그려이 이해해주신 각 팀장님, 팀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DBT>에 화승네트웍스 사람이야기, 회사이야기가 큼지막하게 실려 화승그룹 가족들, 나아가 사외 가족들까지 화승네트웍스를 좀 더 많이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남몰래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보이기에 이번 봄호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한 부 선물할 생각입니다.

화승네트웍스 기획총무팀 박규안 대리



파트너에 대한 고찰



화승그룹 사보 <DBT>가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움켜잡니다. 바쁜 업무시간을 쪼개어가며 고생해주는 주재기자분들을 비롯해, 기획과 진행에 심혈을 기울여 참여하시는 홍보팀 선배, 하이미디어 P&I 편집부까지. 어린 막내가 느낀 <DBT>의 제작 과정은 정말 말 그대로 치열합니다. 이렇게 불꽃 튀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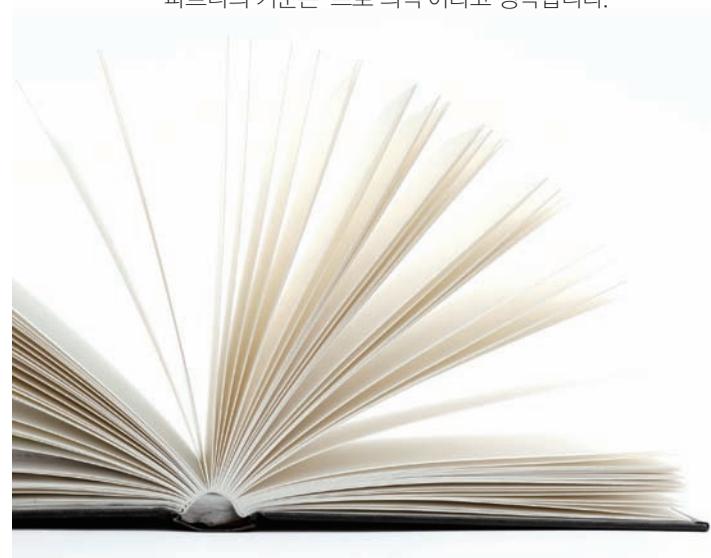
"파트너"

이 익숙한 단어는 <DBT>에선 그룹 내 부서끼리의 업무 협조가 필요할 때 쓰일 수도 있고, 때론 계약 관계상 갑과 을로서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뜻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파트너 관계가 화승그룹 <DBT>의 풍성함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로서 무엇이 더 좋고 나쁘다를 판단하기에 애매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파트너의 기준은 '프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승그룹 <DBT>는 파트너와의 뜨거운 소통으로 탄생합니다.

특히 이번 호를 작업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갑작스레 기획이 변경되면서 일어났던 다급한 국면 속에 파트너 각각의 프로의식이 <DBT>에 다시 안정감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DBT>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내 커뮤니케이션 확대는 물론 더욱 다양해지는 독자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오늘도 화승그룹은 사내외 파트너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앞으로도 <DBT>의 파트너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승그룹 사보 막내기자 심일욱 사원





교육메세나패 수상

교육기부, 자라나는 새싹에 인화의 밑거름을 뿌립니다



화승그룹이 추구하는 인화(人和)의 첫 걸음은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한 사람이 올바른 가치관과 사고를 키우기 위해선 교육이 필수라는 이념을 가지고 끊임없는 교육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화승그룹은 지난 2013년 12월, 부산시교육청이 주관한 제6회 교육메세나패 수여 및 감사 행사에서 교육메세나패를 수상했다. 교육메세나패는 3년간 누계 5천만 원 상당의 교육 기부금을 부산시교육청에 지원한 기관에 수여되는 것으로, 화승그룹은 2011년부터 3년간 공교육만족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

방과 후 학교에 총 6천만 원의 재정지원을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기부 선포식을 개최한 이후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사회가 보유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과 개인의 재능을 활용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학생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교육기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화승그룹은 현재 주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교육후원 사업에 발맞춰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부 문화 확산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화승R&A, 양산 환경대상 기업부문 대상 수상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기업, 바로 화승R&A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화승R&A는 양산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2013 양산 환경대상에서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남 양산시는 대학교수를 비롯해 환경단체,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단을 결성해 환경투자 및 오염 줄이기 실적과 환경사고 민원발생, 친환경 경영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화승R&A를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화승R&A는 대기나 수질 오염물질 줄이기를 위한 시설 개선자금으로 2012년 16억 원을 비롯해 5년간 약 100억 원을 투자해 제조과정 중 발생하는 악취 차단을 위해 습식전기먼지제거시

설과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을 신설했다. 더불어 기존 방지시설에 전처리시설(스크러버) 또는 후처리시설(촉매산화 시설) 설치 등을 보완해 냄새 제로 공장을 실현했다. 또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대비 80% 이상 줄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재활용률을 80% 이상 유지해 2012년 한 해에만 3,600여 톤의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는 등 환경보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높이 평가됐다. 🇰🇷

NEWS



화승R&A

미국 앨라배마에서 제2의 도약을 꿈꾼다 - HSAA, 제2공장 준공식 행사 성료

지난 2월 19일, 미국 앨라배마 주 엔터프라이즈 시에 소재한 화승엘라배마(이하 HSAA)는 토지 약 51,000m² 규모의 자동차용 부품 제2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본 행사는 화승R&A 백대현 사장을 비롯해, 로버트 벤틀리 주지사, 케이 아이비 부주지사, 케네스 보스웰 시장 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HSAA에 따르면 제2공장은 2014년 6월 말부터 일부 생산설비가 설치되어 가동이 시작되고 2015년 말 완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화승R&A는 지난 2003년 미국 앨라배마 주에 진출해 해외계열사 HSAA를 설립한 후 제1공장에서 자동차용 웨더스트립을 생산해왔으며, 이번 제2공장이 완공됨에 따라 자동차용 에어컨 호스 및 브레이크 호스의 추가 생산이 가능해진다. HSAA 제2공장은 총 225억이 투자되었으며, 약 200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백대현 사장은 신공장 증설로 인해 화승R&A가 자동차용 부품 전문사업에 완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서 나가는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며 엔터프라이즈 시의 협조에 감사를 전했다. 화승R&A는 주요 생산품인 자동차용 각종 호스제품과 웨더스트립의 국내 점유율 1위를 넘어 미국 앨라배마 현지 신공장 추가 설립으로 2020년 글로벌 TOP1의 목표 달성을 구제화하고 있다.

부산·경남 대표기업의 책임을 다하다 -

화승R&A,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장관 표창 수상

화승R&A는 지난해 12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3 월드클래스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경상남도 내 대학생 채용확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화승R&A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상생을 다짐했다.



화승T&C

음악으로 삶에 활력을 불어넣다 -

화승T&C, T&C밴드 창단

화승T&C는 지난 2013년 12월 21일 통도환타시아콘도 대연회장에서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사업계획표 및 송년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사내동호회로 새롭게 결성된 T&C밴드 창단 기념연주가 더해졌다. T&C밴드는 음악에 취미를 가진 임직원이 모여 자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실력을 향상하여 최종적으로는 연주력을 사회봉사활동으로 접목시키는 것을 목표로 창단했다. 현재 팀원은 부품사업부 HOSE생산팀 이문기 팀장(단장) 포함 총 6명으로 구성되었다. T&C밴드는 앞으로 사내행사뿐 아니라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무료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300 기업협회 창립총회 및 유공자 포상식에서 고용창출 우수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상을 수상했다.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화승R&A는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1년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NEWS



화승소재

현장중심의 업무 추진을 목표로 -

화승소재, 2014년 사업계획 워크숍 실시

화승소재는 지난해 12월 20일 양산더파티에서 2014년 사업계획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부서별로 2013년 사업실적과 2014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했으며, 중점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소통강화와 정보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화승인더스트리

당신과의 새로운 동행, 참 행복합니다 -

화승인더스트리 자매결연 시설 추가

화승인더스트리는 2014년을 맞이하여 서울에 위치한 상록원(애육원), 아산에 위치한 동래원(양로원)과 추가로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로써 화승인더스트리는 총 5개소의 사회시설과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다. 앞으로도 화승인더스트리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4년 그룹 임원인사 승진 및 겸직

현지호 그룹 총괄부회장

그룹 총괄부회장

→ 그룹 총괄부회장,

(주)화승R&A 각자대표이사 부회장,

(주)화승네트웍스 각자대표이사 부회장,

(주)화승T&C 각자대표이사 부회장,

(주)화승소재 각자대표이사 부회장

현석호 그룹 부회장

그룹 부회장

HSD, HSQ, HSS, HSP 대표이사 부회장

→ 그룹 부회장

HSD, HSQ, HSS, HSP 대표이사 부회장

(주)화승인더스트리 대표이사 부회장,

HS VINA 각자대표이사 부회장,

(주)휴노믹 대표이사 부회장

배태균 각자대표이사 사장

(주)화승네트웍스 각자대표이사 사장

→ (주)화승네트웍스 각자대표이사 사장,

HSNA, HSNV 대표이사 사장

이계영 각자대표이사 부사장

HS VINA 부사장

→ HS VINA, HSD 각자대표이사 부사장,

HVC, HVT 대표이사 부사장

이정두 각자대표이사 전무

(주)화승R&A 전무이사

→ (주)화승T&C 각자대표이사 전무,

(주)화승R&A 전무이사

허성룡 각자대표이사 전무

(주)화승소재 상무이사

→ (주)화승소재 각자대표이사 전무

COMMUNICATOR

화승그룹총괄 홍보팀 김병호 과장

홍보팀 박치선 대리, 심일욱 사원

(주)화승R&A 황지희 (기획팀 사원)

(주)화승소재 임상호 (기획팀가팀 대리)

(주)화승공조 조인희 (경영관리팀 대리)

(주)화승T&C 박재성 (관리팀 대리)

(주)화승네트웍스 박규안 (기획총무팀 사원)

(주)화승엑스월 박지현 (영업지원파트 사원)

(주)화승인더스트리 김연식 (총무팀 계장)



2014년 화승그룹

사보에서 만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최근 점심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직장인, 이른바 스마트 런치족이 많습니다. 화승인은 어떤 점심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신승남

2013년은 전반적으로 문화정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도서, 영화, 연극,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 소식으로도 풍성하게 꾸며주세요

●표상률

간이역, 전통시장, 공원 그리고 오지의 마을과 같은 곳의 사람냄새가 향기롭게 피어나는 자리를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섭

최근 모르는 용어가 부쩍 많아서 대화하다가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신조어들을 사전식으로 정리해주세요.

●김은혜

기업의 친환경 활동이 대두되는 요즘입니다. 화승의 친환경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권선미

여행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있었으면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잠시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적 있는데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왕소빈

우리 사회 명사들과의 인터뷰나 수필 등을 통해 그들의 삶과 철학을 만나고 싶어요.

●서순영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심코 놓치기 쉬운 개인정보 유출 방지법을 소개해주세요.

●양은경

명장(名匠)들의 삶의 자세를 배우고 싶습니다. 게으름을 잘 피우는 저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게도 좋은 지침이 될 듯합니다

●이주현

'젊은이여 야망을 품자!'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꿈과 길을 제시해주세요.

●문계숙

■ 2014년 화승그룹 사보 <DBT>보호 독자엽서 당첨자



※당첨되신 분께는 개별 연락드리오며,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은 2014년 4월 20일까지 051-850-702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에는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여행스케치
3개월 무료 구독권
정두현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최향숙 (충남 태안군 태안읍

등문리), 강주찬 (부산시 동래구 중앙대로) 이용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남로), 장희지 (대구 북구 고성동3가)

※우수 독자엽서에 당첨되신 분들에게는 월간 <여행스케치> 3개월 무료 구독의 행운이 주어집니다.



화승상품권 5만 원권

신승남 (인천시 부평구 안남로), 표상률 (경남 김해시 원산로) 이재섭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김은혜 (전남 보성군 별교읍 채동선로), 권선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3로), 왕소빈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서순영 (부산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양은경 (경북 문경시 중앙로), 이주현 (전남 여수시 여서로), 문계숙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독자엽서에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5만 원권 화승 상품권이 사은품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우주 빼고, 다 갑니다

글로벌 종합무역 상사, 화승네트웍스



촬영협조
인천항만공사, (주)한진

화승에 웬 무역회사? 화승 협력업체야?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실듯하다. 2006년에 설립했으니 올해로 딱 8살이 되는 화승그룹의 글로벌 종합무역 계열사, 화승네트웍스. 화승그룹의 모든 사업군을 아우르며 철강사업, 일반무역사업, 섬유사업, 통합구매사업에 이르기까지 거침없이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믿음이 곧 이름이 되는 기업'이라는 슬로건답게 2020 그룹비전을 향해 돌직구를 날리고 있는 화승네트웍스의 속살을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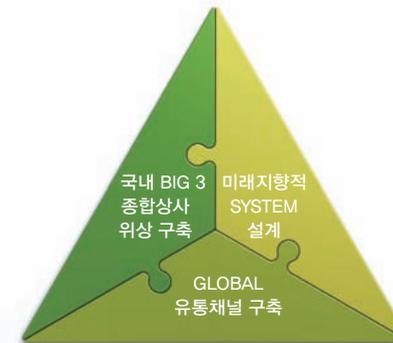


아직은 낯선 무역 대동맥, 화승네트웍스를 해부하다

2006년 부산, 서울을 기점으로 화승그룹의 종합무역 상사로 출범한 화승네트웍스는 세계로 통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큰 도약을 위해 세계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연평균 160%에 육박하는 성장을 거듭해온 화승네트웍스는 준법감시팀,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필두로 관리본부, 철강, 일반 무역팀을 보유한 유통무역본부, 섬유사업본부, 통합구매사업본부의 조직으로 글로벌 네트워킹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외 굴지의 철강메이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해외 수출 및 국내 수입 후 유통 판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유통무역본부의 철강팀은 활발한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사업 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또한 국내의 철강업체의 수출입을 대행하면서 동반성장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기반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 일반 무역 사업팀은 식품, 사료, 광물, 신재생 에너지 등의 다양한 아이템과 폭넓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발굴하고 공급함으로써 고객만족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Great Innovation 2020



섬유사업본부는 다각적인 판매망을 가지고 국내 원사 및 원단을 미국, 남미, 유럽 등으로 수출하고, 해외원사 및 원단을 제3국으로 판매하는 삼국간 무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원사 및 원단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며, 향후 의류 OEM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외 네트워크를 구축해가며 섬유시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합구매사업부는 국내외 그룹사 및 협력사의 원·부자재, 설비 통합구매 및 조달, 원·부자재 유통판매, 기업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기업 운영에 필요한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유통채널 구축, 국내 Big 3 종합상사 위상 구축, 미래지향적 시스템 설계의 트라이앵글 2020 비전을 마련한 화승네트웍스의 내일이 더 기대된다.

화승네트웍스 사사이드 정수련, 김성은, 박규안을 만나다.

섬유 원단회사에서 2012년 이직해 섬유사업본부에서 국내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정수련 대리, 본부장, 팀장, 팀원들 간의 끈끈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회사 생활로 화승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는 그에게 화승은 좋은 인연을 만나고, 업무뿐만 아니라 인생을 배우는 고마운 곳으로 각인되어 있다. 꼼꼼한 성격에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류찬상 팀장을 좋은 화승 사람으로 첫 손에 꼽는 그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위기란 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단다. 원사, 원단뿐만 아니라 폭넓게 업무를 확대해 매출을 올리는 섬유사업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비전을 가진 그의 2014년을 응원한다.

2012년 그룹공채 17기로 입사한 유통무역 본부 일반무역팀의 김성은 사우는 수입대행 및 출고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두려움과 설렘으로 시작했던 첫 출근 날을 기억하며 5년 후 어떠한 아이템이 생기든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로 화승에 꼭 필요한 믿을 수 있는, 안심이 되는 직원이 되고 싶단다. 전문적 업무 지식은 물론 실수투성이었던 자신을 믿고 이끌어주는 같은 팀 박성희 대리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그는 업무 흐름에 정통하고, 솔한 실무 경험을 통해 영업전문가로 거듭나기를 꿈꾼다. 웃음을 잃지 않는 좋은 사람, 박규안 대리. 동분서주하며 화승네트웍스 사람을 챙기는 그는 늘 You first다. Do Better Tomorrow - 화승네트웍스의 내일을 여는 시작점. 인천항으로 동행한 짧은 시간, 세계를 찾았던 화승네트웍스가, 세계가 찾는 화승네트웍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바다에 띄운다. 🇰🇷

Road to Hwaseung 2014년 화승그룹 교육 로드맵

2014년 갑오년(甲午年) 화승그룹 교육의 주요 특징은 HR의 주요 책무인 경영성과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 및 창의성 발달을 강조한 점이다. 한국적 경영 3.0시대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자기 주도적 학습에 초점을 맞추었다.

금년 그룹 교육의 주요 과정을 살펴보면, 승진자 교육은 직급에 따른 단계적 그룹 리더십 파이프라인(Leadership Pipeline)과 커뮤니케이션 파이프라인(Communication Pipeline)에 따르는 필수교육으로 진행된다.

선택교육은 직급별 계층역량과 공통역량 교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직무역량 교육의 경우 직급 및 역량 수준에 따라 구성되어 본인의 수준에 따른 교육을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또한, 핵심인재 유형 중 각 계열사에서 선발한 이들을 중심으로 사내강사그룹을 육성할 예정이다. 그리고 처음 시행되는 사이버 교육에 필수교육 이수확점을 부여하여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방식 형태의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는 구성원 개개인의 경력개발(Career Development Plan)에 의해 그룹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회사의 비전 달성과 구성원의 성장 발전에 필요한 역량 향상 활동이 자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인개발(Individual Development Plan) 구축 및 학습조직개발(Community of Practice)을 통해 광범위한 교육을 벗어나 현장이슈, 문제해결 중심으로 나아가갈 예정이다.

앞선 트렌드의 흐름을 읽고 최적화된 교육으로 화승그룹 교육 강화에 단단한 기틀을 만드는 일, 화승을 화승답게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올해 교육의 최종 목표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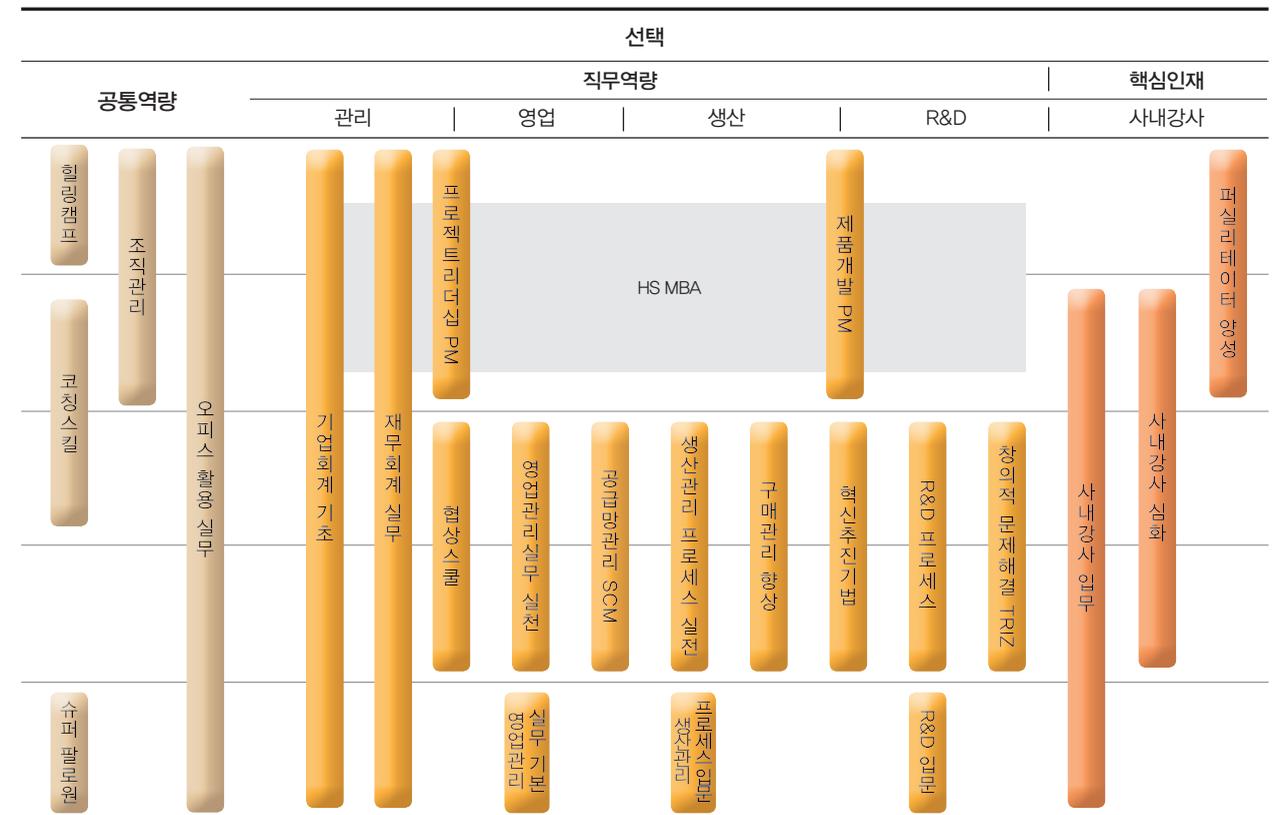
2014년에는 새로운 교육 방식으로 화승을 이끌고 싶었다. 전반적인 기획을 하고 그 액션 플랜에 따라 교육의 초점을 리더십과 계층 역량 교육에 두었다. 이 외에도 단계적 직무교육 시행과 교육생 스스로가 원하는 과정을 직접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시스템 또한 시도하였다. 작년 그룹 교육을 직접 연차별 필수교육으로 시행한 것에 비하면 커다란 변화이기도 하다.



■ 주요교육 추진방향

직급	필수	
	리더십 역량	계층 역량
부장		2014 경제전망 트렌드 신사업 성장
차장	차장 승진자 HWASEUNG WAY 커뮤니케이션 & 리더십	전략 및 정책수립
과장	과장 승진자 HWASEUNG WAY 커뮤니케이션 & 리더십	문제해결력 강화 성과관리 프로세스
대리(계장)	대리 승진자 HWASEUNG WAY 커뮤니케이션 & 리더십	경력 개발과 경력 설계 전략적 기획
사원	사원 승진자 HWASEUNG WAY 커뮤니케이션 & 리더십	업무수행 스킬 업 비즈니스 문서작성

* 인터스트리 계장의 경우 대리직급 교육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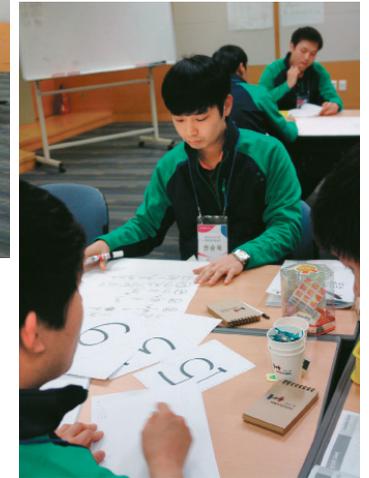




2014 화승그룹 신입사원 입문교육

세상을 바꿔 놓을 화승의 힘

2014년 새해를 깨우는 화승의 '미래'들이 경주 드림센터에 모였다.
1월 13일부터 18일까지 5박 6일간 진행된 2014 화승그룹 신입사원 입문교육.
설렘을 가득 안고 온 그들은 그렇게 서서히 화승에 물들고 있었다.



화승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27명 새내기들.

낮선 얼굴들과 마주한 첫 대면의 자리는 어색했지만 모두가 '화승인'이라는 생각에 이내 경계가 허물어졌다. 그렇게 긴장과 기대가 가득한 공기 속에서 그룹 회장실 박동호 전무의 격려사로 2014 화승그룹 신입사원 교육의 첫 포문을 열었다.

이번 교육의 주인공은 2013년 채용된 수시모집 신입사원들로 이루어졌다. 어색한 시간도 잠시, 그룹 소개와 함께 진행된 짝 찬 교육 프로그램들을 통해 그들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공채 18기 선배의 축하 메시지와 조언을 들으며 신입사원들은 각자 자신만의 목표를 설정했다. 실전에 필요한 업무지식과 유연함을 강조한 선배의 조언에 신입사원들은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은 모습이였다. 이어진 화승골든벨 시간, 총 30개의 문제를 풀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지만 결국 골든벨을 울린 이는 아무도 없었다. 아쉬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지만 새내기다운 패기와 격려로 이조차도 즐거운 모습이였다.

2014년 신입사원 입문교육에서는 이전과 다른 프로그램 또한 시도되었다. 신입사원들이 직접 만든 기획안을 바탕으로 PD, 작가, 카메라 감독이 되어 완성한 영상을 통해 세상에 한 번뿐인 화승필름페스티벌을 진행한 것이다. 오직 신입사원들의 힘으로 탄생한 3편의 영상물은 기대 이상의 완성도를 자랑했다. 화승그룹 사업군 전체를 아우르는 신입사원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머지않아 세상을 바꿔놓을 화승그룹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화승 깨어오라! 화승에 도전하라!



다른 출발선에서 서 있지만 훗날 오늘의 아름다운 추억을 안주삼아 소주 한잔 기울일 날이 오리라 믿는다.



당신은 참 관참은 사람입니다

- 1 비주얼 퍼포먼스를 손수 준비하는 신입사원들의 재기발랄한 모습.
- 2 몸과 마음을 릴렉스~ 힐링 요가 시간.
- 3 비주얼 퍼포먼스에서의 HWASEUNG 카드 섹션.
- 4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Tea Time~
- 5 가벼운 마음으로 경주 남산을 오르는 패기의 신입사원들.



넷째 날 이른 아침, 강의장에 스산한 기운이 감돈다.

졸린 눈을 비비며 모인 그들은 간단한 체력단련(?)과 함께 산행을 준비했다. 목표는 해발 468m의 경주 남산 정상. 가벼운 마음으로 뒷동산 마실 다녀오라던 신입사원 교육 총괄 안진우 과장의 말을 비웃듯이 거친 산세로 인해 등산 코스는 산보가 아닌 암벽 등반 수준의 산악 훈련이 되고 말았다. 가장 난이도 높은 코스로 등반하며 한겨울 굵은 땀방울과 함께 목청 터져라 구호를 외치던 신입사원들은 서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동기애'와 '나눔'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겼다.

꽃단장을 하고 머리카락 한 올에도 영혼을 불어넣은 후 비장하게 준비한 비주얼 퍼포먼스. 하지만 음악에 맞춰 난생 처음 추는 군무에 몸 따로 마음 따로였다. 10대 못지않은 열정으로 연습을 거듭한 끝에 완성된 비주얼 퍼포먼스는 교육 첫날부터 밤잠까지 설쳐가며 준비한 노력의 산물이기에 더욱 뜻 깊었다. 모든 과정을 수료하고 기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진 한 마디, '동기'. 지금은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 다른 출발선에서 서 있지만 훗날 오늘의 아름다운 추억을 안주삼아 소주 한잔 기울일 날이 오리라 믿는다. 밝은 미소와 함께 성장하는 27명의 화승그룹 신입사원들, 당신들은 참 관참은 사람입니다. 🇰🇷





힘내라 당신, 힘내라 우리!

부산경남방송 KNN 희망경제 캠페인 촬영 현장 - 화승인더스트리 편



깨끗한 작업 환경과 분업화된 직원들의 숙련된 손놀림을 보며 화승인더스트리의 우수한 품질이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이유를 알 수 있었다. 1969년 (주)풍영화성으로 시작해 5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화승인더스트리는 신발 제조 회사로 시작했지만 곧 필름 분야로 사업 다각화에 성공,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 오고 있다. 2010년부터는 태양 전지 소재 사업에 뛰어들어 글로벌 생산 및 마케팅 체계 구축에 성공해 태양 전지 소재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다. 정밀화학 제조기술과 노하우로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 받는 세계 최고의 필름제품 전문기업 화승인더스트리.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해 나갈 이들의 내일이 기대된다. 🇰🇷



2월 14일, 오늘은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필름제품 전문기업 화승인더스트리에서 2014 화승그룹 연중 캠페인을 촬영하는 날. 아침부터 화승인더스트리의 현장이 분주하다. 부산 경남 대표 방송 KNN 촬영팀과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선 화승인더스트리의 모든 것을 담았다. 세계 시장에서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희망경제 캠페인'의 주인공에 선정된 화승인더스트리. 실 새 없이 돌아가며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거대한 기계들, 화승인더스트리의 대표 필름 생산 현장에서 촬영이 진행되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유아용 기저귀와 생리대 그리고 과자와 담배 포장지는 물론 산업용 포장지, 라벨 속에도 화승인더스트리의 기술이 오롯이 녹아 있다.



자원봉사, 왜 합니까?

봄엔 싹이 움튼다. 작은 새싹은 자라 열매가 되고, 열매는 움츠렸던 겨울을 지나 또다시 세상이 따스해졌음을 알린다. 세상이 따뜻해지는 건, 따뜻한 열매를 맺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름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화승그룹이 후원하는 제10회 WATA(세계예술치료협회) 동계 캠프에선 이처럼 추운 겨울 속에서도 따스한 마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들의 고군분투를 볼 수 있었다. WATA 캠프의 또 다른 주인공이자 보물인 자원봉사자. 이들은 왜 WATA와 함께 고생하며 봉사를 하는지, <DBT>가 어찌면 당연할 수도 있는 질문을 던져보았다.



내 20대의 추억

새로운 치유의 꿈

변산소동의 기억

절실하지만 행복한 동행



화승그룹과 함께하는 세계예술치료협회 제 10회 겨울가족캠프! <년 특이할 것>

YOU are Special!



WATA에서는 아이들과 부모, 봉사자, 함께한 모든 이들이 치유의 행복을 맞본다.



W



A



T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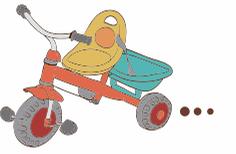


Jang Byeongdu

장병두(29)

수줍은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갑작스런 현장인터뷰에 많이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질문에 귀 기울이고 고민한다. 이전부터 많은 봉사 활동을 해왔었지만 WATA와의 만남은 사실 인터넷에서 취업 준비 커뮤니티를 통해 소위 말하는 '봉사 스펙'을 찾던 도중이라고 말한다. 2009년 1회를 시작으로 매년 빠지지 않고 지금까지 인연을 맺어온 WATA. 오랜 기간을 함께해온 덕에 캠프에서 그의 역할은 매우 빛난다. 이번에도 취업준비로 한창 바쁜 와중에 협회 측의 간곡한 부탁과 더불어 캠프에 끌려(?) 왔다고 한다. 사실 봉사자들이 짝지 아동과 1박 2일 동안 함께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아이들의 격한 사랑을 이틀 동안 고스란히 느끼다 보니 상당히 고되지만 치료를 통해 매년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만둘 수가 없다고 한다. 병두 씨 또한 20대의 청춘을 WATA와 보내며 가슴 속에 새긴 자원봉사자라는 명함이 매우 자랑스러운 것이다.

Heo Yun



허윤(만30)

거친 사람인 줄 알았다. 이틀 동안 스태프로 활동하는 그녀의 안내 멘트가 온 캠프장을 찌렁찌렁 울렸다. 배우 허윤 씨는 병두 씨와 마찬가지로 세계예술치료협회의 시작과 함께한 WATA 봉사자들의 터줏대감이다.

수년 전 작은 연극 집단에 소속되어 있던 그녀는 우연히 맺은 WATA와의 인연을 그리 특별하게 생각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당시 첫 짝지 아동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친구였다. 당시 1박 2일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지만, 캠프가 끝나고 헤어지기 직전 그 친구가 어깨를 툭툭 치며 "수고했어"라고 던진 한 마디에 허윤 씨가 변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때 나는 아동과의 작은 소통이 그녀의 가슴을 울려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이다. 봉사자로서 활동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자신이 치유 받는다는 허윤 씨. 아이들과의 작은 소통은 배우로서의 표현에도 큰 도움이 된다. 자연스러운 소통의 중독에 빠진 그녀와 WATA의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Kim Somin



김소민(26)

참가 가족들이 WA팀, TA팀 편을 나눠 다양한 게임을 하는 WATA 동계 캠프의 꽃, 가족대항전. 어딘가에서 목청 터져라 들려오는 응원소리가 있었다. 바로 소민 씨였다. 허윤 씨와 함께 대학로에서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그녀는 2013년 아싸라비아 바자회부터 WATA와 함께하고 있다. 특이하게도 이번에는 봉사자가 아닌 세계예술치료협회 인턴으로 참여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본업이 배우인 만큼 연극을 접목한 치료·교육 분야로 경험을 쌓으며 WATA를 통해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그녀는 이번 캠프에서 새롭게 준비된 부부 마사지 프로그램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한다. 아이들을 돌보며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님들이 잠시 잊고 있었던 부부간의 스킨십으로 조금이나마 활력을 되찾아가는 모습에서 '이것이 바로 WATA 가족 캠프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아닐까' 생각했다고. WATA에서는 아동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는 물론 부모, 봉사자, 스태프 등 참여한 이들 또한 이곳에서 치유되어 돌아간다고 소민 씨는 믿는다. 그녀가 꿈꾸는 모두가 치유되는 세상,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곳 WATA다.



Jeong Chaeyeong

정채영(28)

친구의 권유로 작년부터 시작된 WATA와의 인연. 캠프기간 내도록 그는 싱글벙글이다. 호쾌하고 듬직한 그의 웃음에서 긍정의 기운이 잔뜩 묻어난다.

사실 작년 여름 캠프에 짝지를 맡았을 때만 해도 그는 웃지 못했다고 한다. 수많은 예술 치료 프로그램이 기획된 여름 캠프였지만 정작 짝지 아동은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어 계속 행사장을 맴돌기만 했다. 협회에서도 그의 고생을 알고 올해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채영 씨는 웃으면서 돌아왔다. 자신은 캠프가 진행되는 기간만 고생하면 되지만 돌아가서 계속 아동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짝지 아동의 형제나 부모님들을 생각하니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시 컴백한 채영 씨가 맡은 짝지 아동, 이번 동계 캠프도 쉽지 않다. 하지만 아이의 부모·형제가 되어 1박 2일을 함께하며 긍정의 웃음꽃을 피운 그는 캠프에 참가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듯했다. 🇰🇷



끈끈한 초코파이 정신. 화승R&A.

통근 버스 놓칠까봐 바짝 긴장하고, 대기하던 화승R&A 본관 2층 접견실에서 갖 자대배치를 받은 이등병마냥 바짝 얼어있던 안준철 사원이 화승 사람이 된 지도 벌써 1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했던가요. 이제는 어엿한 화승R&A 인사과장으로 사람 마음까지 관리하는 HR 베테랑이 되어 더 크게, 더 멀리 화승을 봅니다. 그는 주어진 일은 가능한 빨리 자신의 일로 만들고, 늘 배우는 자세로 셀프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는 노하우를 전합니다. 포털 사이트의 업무별 카페에 가입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같은 분야의 선경험으로 인적 자산과 더불어 자신만의 업무 스킬을 높여야 한다고요.

현장형 기자처럼 전방위적으로 늘 자신의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열혈 인사과장 준철. 그에겐 유지한 님이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2003년 입사해 2005년까지 2년 남짓 근무한 분이지만 입사 동기들에 비해 조금 늦게 시작한 사회생활, 양산 본사의 해외영업팀 입사 후 출근과 동시에 본관 사무실을 돌며 “안녕하세요! 유지한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하루 업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현지호 부회장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미스터 안녕하세요’는 요즘 잘 있냐”고 안부를 물어봤을 정도라고요.

2년여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퇴사 후에도 서울에서 만나 식사도 하며 안부를 나누던 사이였는데, 요즘 뜬혀져 결혼식 때 참석하지 못한 것이 못내 미안하다며 마음을 전합니다.

정이 가득한 초코파이 정신과 평균 이상의 애사심으로 푹푹 뭉친 화승R&A - 인사과장이라 행복하다는 그는 모두가 득을 보려고 하니 문제라며, 조금은 손해 본다는 마음으로 살면 그것만으로 힐링이 될 거라 소신을 전합니다. 마음 속 계산기는 타임캡슐에 묻어두고, 관용과 정도(正道)를 늘 가슴에 새기며 생활한다면 지혜롭고 현명한 화승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요.

조근조근 입담을 푸는 그에겐 직원들 사이의 인간관계를 담은 자신만의 이론이 있습니다. 업무 관계로 시작해서 업무관계로 끝맺음하는 직원(B2B), 업무 관계로 시작해서 인간관계로 연결되고 있는 직원(B2C), 업무관계를 기본으로 인간관계까지 연결된 직원(C2C)이 바로 그것이지요.

업무를 기본으로 인간관계까지 연결된 C2C의 행복한 직원들이 점점 늘어났으면 한다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안준철 과장에게서 때 묻지 않은 화승R&A의 끈끈한 초코파이 정신을 봅니다. 어느새 화승 사람으로 완전히 행복한 그를 봅니다.



참 인복 많은 회사. 화승인더스트리.



낮선, 어색한, 불편한, 설레는, 그 걱정 가득했던 첫 출근 날을 잊을 수 없다는 화승인더스트리 총무팀 성용현 차장은 화승 밥을 먹은 지 벌써 14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14년 한결같이 인사통으로 화승 사람을 관리해온 그의 잔뼈는 선배들이 쌓은 노하우를 제대로 훑치는 기술에서 비롯됩니다.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산지식을 선배들에게 배우고, 또 그것을 이제는 후배들에게 하나둘씩 퍼주는 선배가 되었습니다.

2013년 입사한 B사원을 기억합니다. 화승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던 이가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해 아쉬웠지만, 다른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해 극적으로 화승 사람이 된 B사원. 지금은 회사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인재로 소임을 다하고 있어 자신이 다 뿌듯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 경미한 교통사고로 몸이 힘들 텐데, 빠른 쾌유를 바란다는 따뜻한 위로도 잊지 않습니다. 신입 시절 영업팀에 근무하셨던 김승태 팀장과 육두문자까지 나누며 싸웠던 기억도 새롭습니다. 까다롭고, 철저하기로 소문났던 그이기에 이제 죽었다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팀의 고충을 이해해주셔서 더욱 고마웠던 분이셨습니다. 가끔 서울사무소에 가면 늘 환하게 웃어주시던 그가 얼마 전 본부장으로서 퇴사하던 날 한 통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너랑은 꼭 소주 한잔하고 싶었는데...”

그리고 그에겐 가슴에 새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생산관리부문에 지원하기 위해 이력서를 들고 처음 화승인더스트리를 방문했을 때, 경비실 뒤편 작은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으시던 분이 총무팀에 입사할 생각이 없냐고 물으셨지요. 정중히 거절했지만 결국 총무팀에 입사하게 되었고, 그때 마주했던 분이 바로 당시 총무팀장, 지금의 이혁근 본부장이었습니다. 입사 후 결혼을 하고, 처음 내집마련을 준비하며 500만 원이 부족해 고민하고 있던 찰나, 얘기를 전해 들은 이 본부장이 덜컥 500만 원을 입금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분이 있나. 뭘 믿고 나에게 선뜻 호의를 베풀어 주셨을까. 평생 잊을 수 없는 고마운 화승 사람입니다.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에게 꼭 빼먹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승이란 회사는 참 인복이 많은 회사다.’ 선배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인지, 회사에서 채용을 잘해서인지는 모르지만 화승인더스트리는 유독 성실하고 정이 많은 분들로 가득합니다. 바로 그들이 화승의 그 기나긴 세월을 지켜온 원동력이라 그는 생각합니다. 귀가 열린 화승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는 성용현 차장은 나의 얘기보다 상대방의 얘기 속에서 해답을 찾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참 인복이 많은 회사, 화승인더스트리에 참 인복이 많은 인사 차장, 성용현. 그를 인사통으로 둔 화승인더스트리도 참 복이 많은가 봅니다. 🇧🇷🇵🇰

화승네트웍스 in <DBT>

계절이 변하면 어김없이 새로운 소식을 한 움큼 담아오는 화승그룹 사보 <DBT>. 계열사 주재기자들도 3개월에 하루는 한자리에 모여 이런저런 생각들을 나누며 회의를 가집니다. 사실 그동안 저에게 주재기자 회의는 그리 편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주재기자가 되고 1년 남짓, 화승네트웍스에 인원이 적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기삿거리 한 번 준비하지 못한 채로 자리를 지키는 일이 영 곤혹스럽습니다.

이번 봄호 사보회의도 이렇다 할 화승네트웍스 기사 콘셉트를 잡지 못하고 야속하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술자리에서 만들어진다는 명언(?)처럼 회의가 끝난 후 식사 자리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홍보팀의 독려와 더불어 약간의 술기운으로 '그래, 2014년 봄호는 나 스스로의 네트워크 특집호로 한번 만들어보자'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홍보팀의 든든한 지원도 약속받았습니다.

많은 고생 끝에 실린 이번 기사를 통해 <DBT> 독자들이 화승네트웍스를 더욱 잘 알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호기롭게 시작했지만 인원 섭외부터 날짜, 촬영장소 선정까지 뭐 하나 매끄럽게 풀리는 게 없어 울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참석 인원이 몇 번이나 바뀌는 시행착오 끝에 드디어 2월 20일, 인천항을 배경으로 섬유팀 정수련 대리, 일반무역팀 김성은 사원이 참여하여 직원 촬영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바쁜 업무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준 동료들과 바쁜 시기에 업무공백을 너그려이 이해해주신 각 팀장님, 팀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DBT>에 화승네트웍스 사람이야기, 회사이야기가 큼지막하게 실려 화승그룹 가족들, 나아가 사외 가족들까지 화승네트웍스를 좀 더 많이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남몰래 마음고생도 많았지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보이기에 이번 봄호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한 부 선물할 생각입니다.

화승네트웍스 기획총무팀 박규안 대리



파트너에 대한 고찰

화승그룹 사보 <DBT>가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움켜잡니다. 바쁜 업무시간을 쪼개어가며 고생해주는 주재기자분들을 비롯해, 기획과 진행에 심혈을 기울여 참여하시는 홍보팀 선배, 하이미디어 P&I 편집부까지. 어린 막내가 느낀 <DBT>의 제작 과정은 정말 말 그대로 치열합니다. 이렇게 불꽃 튀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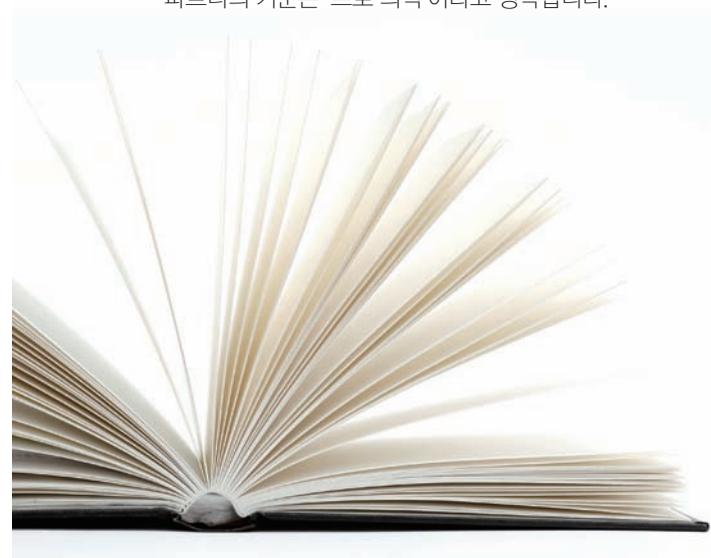
"파트너"

이 익숙한 단어는 <DBT>에선 그룹 내 부서끼리의 업무 협조가 필요할 때 쓰일 수도 있고, 때론 계약 관계상 갑과 을로서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뜻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파트너 관계가 화승그룹 <DBT>의 풍성함을 만들어 낸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로서 무엇이 더 좋고 나쁘다를 판단하기에 애매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파트너의 기준은 '프로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승그룹 <DBT>는 파트너와의 뜨거운 소통으로 탄생합니다.

특히 이번 호를 작업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갑작스레 기획이 변경되면서 일어났던 다급한 국면 속에 파트너 각각의 프로의식이 <DBT>에 다시 안정감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DBT>는 발전하고 있습니다. 사내 커뮤니케이션 확대는 물론 더욱 다양해지는 독자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오늘도 화승그룹은 사내외 파트너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앞으로도 <DBT>의 파트너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승그룹 사보 막내기자 심일욱 사원





교육메세나패 수상

교육기부, 자라나는 새싹에 인화의 밑거름을 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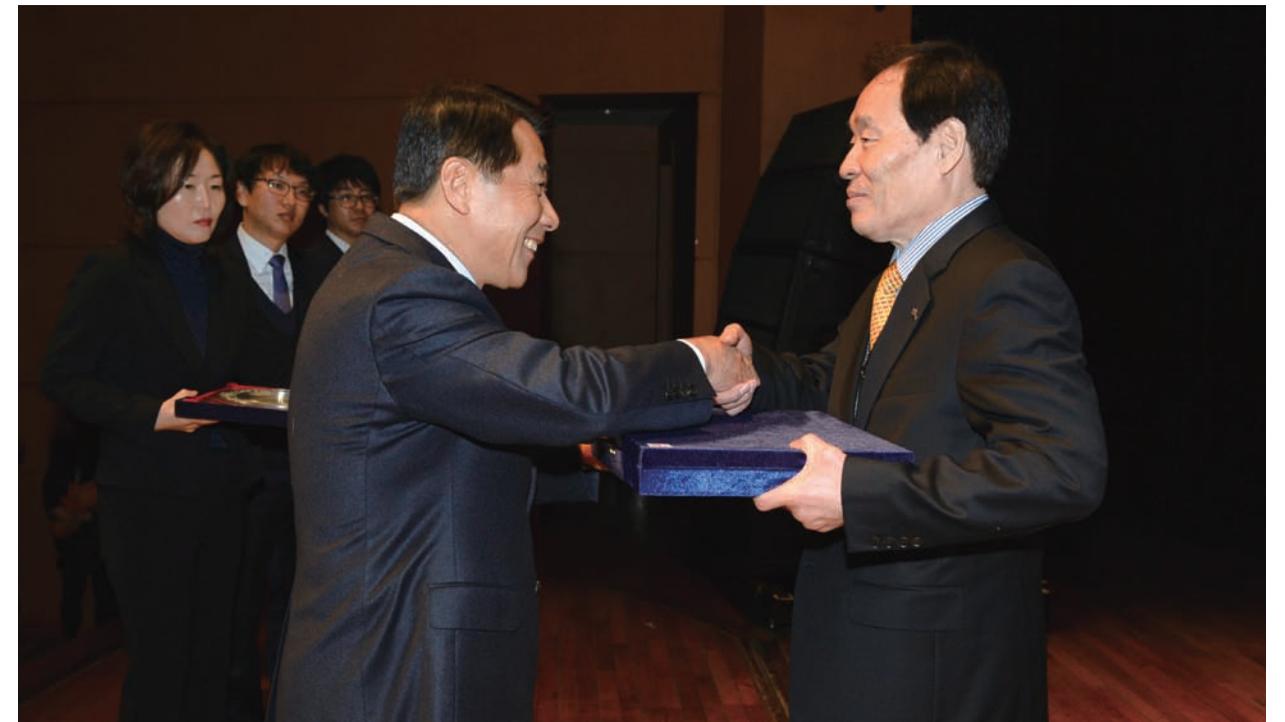
화승그룹이 추구하는 인화(人和)의 첫 걸음은 사람에게서 시작된다. 한 사람이 올바른 가치관과 사고를 키우기 위해선 교육이 필수라는 이념을 가지고 끊임없는 교육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화승그룹은 지난 2013년 12월, 부산시교육청이 주관한 제6회 교육메세나패 수여 및 감사 행사에서 교육메세나패를 수상했다. 교육메세나패는 3년간 누계 5천만 원 상당의 교육 기부금을 부산시교육청에 지원한 기관에 수여되는 것으로, 화승그룹은 2011년부터 3년간 공교육만족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

방과 후 학교에 총 6천만 원의 재정지원을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기부 선포식을 개최한 이후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사회가 보유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과 개인의 재능을 활용해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학생들에게 직접 제공하는 교육기부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화승그룹은 현재 주요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교육후원 사업에 발맞춰 부산시교육청과 함께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부 문화 확산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화승R&A, 양산 환경대상 기업부문 대상 수상

환경을 생각하는 에코기업, 바로 화승R&A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화승R&A는 양산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2013 양산 환경대상에서 기업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남 양산시는 대학교수를 비롯해 환경단체,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 심사단을 결성해 환경투자 및 오염 줄이기 실적과 환경사고 민원발생, 친환경 경영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화승R&A를 최종 수상자로 선정했다. 화승R&A는 대기나 수질 오염물질 줄이기를 위한 시설 개선자금으로 2012년 16억 원을 비롯해 5년간 약 100억 원을 투자해 제조과정 중 발생하는 악취 차단을 위해 습식전기먼지제거시

설과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을 신설했다. 더불어 기존 방지시설에 전처리시설(스크러버) 또는 후처리시설(촉매산화 시설) 설치 등을 보완해 냄새 제로 공장을 실현했다. 또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 대비 80% 이상 줄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재활용률을 80% 이상 유지해 2012년 한 해에만 3,600여 톤의 폐기물 발생을 감소시키는 등 환경보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높이 평가됐다. 🇰🇷

NEWS



화승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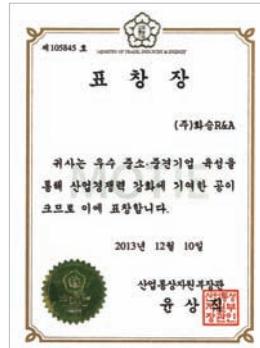
미국 앨라배마에서 제2의 도약을 꿈꾼다 - HSAA, 제2공장 준공식 행사 성료

지난 2월 19일, 미국 앨라배마 주 엔터프라이즈 시에 소재한 화승엘라배마(이하 HSAA)는 토지 약 51,000m² 규모의 자동차용 부품 제2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본 행사는 화승R&A 백대현 사장을 비롯해, 로버트 벤틀리 주지사, 케이 아이비 부주지사, 케네스 보스웰 시장 외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HSAA에 따르면 제2공장은 2014년 6월 말부터 일부 생산설비가 설치되어 가동이 시작되고 2015년 말 완전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화승R&A는 지난 2003년 미국 앨라배마 주에 진출해 해외계열사 HSAA를 설립한 후 제1공장에서 자동차용 웨더스트립을 생산해왔으며, 이번 제2공장이 완공됨에 따라 자동차용 에어컨 호스 및 브레이크 호스의 추가 생산이 가능해진다. HSAA 제2공장은 총 225억이 투자되었으며, 약 200여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백대현 사장은 신공장 증설로 인해 화승R&A가 자동차용 부품 전문사업에 완전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앞서 나가는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선점할 것이라며 엔터프라이즈 시의 협조에 감사를 전했다. 화승R&A는 주요 생산품인 자동차용 각종 호스제품과 웨더스트립의 국내 점유율 1위를 넘어 미국 앨라배마 현지 신공장 추가 설립으로 2020년 글로벌 TOP1의 목표 달성을 구제화하고 있다.

부산·경남 대표기업의 책임을 다하다 -

화승R&A,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장관 표창 수상

화승R&A는 지난해 12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3 월드클래스



지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는 경상남도 내 대학생 채용확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화승R&A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상생을 다짐했다.



화승T&C

음악으로 삶에 활력을 불어넣다 -

화승T&C, T&C밴드 창단

화승T&C는 지난 2013년 12월 21일 통도환타시아콘도 대연회장에서 임직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사업계획표 및 송년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사내동호회로 새롭게 결성된 T&C밴드 창단 기념연주가 더해졌다. T&C밴드는 음악에 취미를 가진 임직원이 모여 자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 넣고, 실력을 향상하여 최종적으로는 연주력을 사회봉사활동으로 접목시키는 것을 목표로 창단했다. 현재 팀원은 부품사업부 HOSE생산팀 이문기 팀장(단장) 포함 총 6명으로 구성되었다. T&C밴드는 앞으로 사내행사뿐 아니라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무료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300 기업협회 창립총회 및 유공자 포상식에서 고용창출 우수 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상을 수상했다.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은 것이다. 화승R&A는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1년 경상남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NEWS



화승소재

현장중심의 업무 추진을 목표로 -

화승소재, 2014년 사업계획 워크숍 실시

화승소재는 지난해 12월 20일 양산더파티에서 2014년 사업계획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부서별로 2013년 사업실적과 2014년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토론했으며, 중점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소통강화와 정보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화승인더스트리

당신과의 새로운 동행, 참 행복합니다 -

화승인더스트리 자매결연 시설 추가

화승인더스트리는 2014년을 맞이하여 서울에 위치한 상록원(애육원), 아산에 위치한 동래원(양로원)과 추가로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로써 화승인더스트리는 총 5개소의 사회시설과 인연을 이어가게 되었다. 앞으로도 화승인더스트리는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향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4년 그룹 임원인사 승진 및 겸직

현지호 그룹 총괄부회장

그룹 총괄부회장

→ 그룹 총괄부회장,

(주)화승R&A 각자대표이사 부회장,

(주)화승네트웍스 각자대표이사 부회장,

(주)화승T&C 각자대표이사 부회장,

(주)화승소재 각자대표이사 부회장

현석호 그룹 부회장

그룹 부회장

HSD, HSQ, HSS, HSP 대표이사 부회장

→ 그룹 부회장

HSD, HSQ, HSS, HSP 대표이사 부회장

(주)화승인더스트리 대표이사 부회장,

HS VINA 각자대표이사 부회장,

(주)휴노믹 대표이사 부회장

배태균 각자대표이사 사장

(주)화승네트웍스 각자대표이사 사장

→ (주)화승네트웍스 각자대표이사 사장,

HSNA, HSNV 대표이사 사장

이계영 각자대표이사 부사장

HS VINA 부사장

→ HS VINA, HSD 각자대표이사 부사장,

HVC, HVT 대표이사 부사장

이정두 각자대표이사 전무

(주)화승R&A 전무이사

→ (주)화승T&C 각자대표이사 전무,

(주)화승R&A 전무이사

허성룡 각자대표이사 전무

(주)화승소재 상무이사

→ (주)화승소재 각자대표이사 전무

COMMUNICATOR

화승그룹총괄 홍보팀 김병호 과장

홍보팀 박치선 대리, 심일욱 사원

(주)화승R&A 황지희 (기획팀 사원)

(주)화승소재 임상호 (기획팀가팀 대리)

(주)화승공조 조인희 (경영관리팀 대리)

(주)화승T&C 박재성 (관리팀 대리)

(주)화승네트웍스 박규안 (기획총무팀 사원)

(주)화승엑스월 박지현 (영업지원파트 사원)

(주)화승인더스트리 김연식 (총무팀 계장)



2014년 화승그룹

사보에서 만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최근 점심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직장인, 이른바 스마트 런치족이 많습니다. 화승인은 어떤 점심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신승남

2013년은 전반적으로 문화정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도서, 영화, 연극, 전시회 등 각종 문화행사 소식으로도 풍성하게 꾸며주세요

●표상률

간이역, 전통시장, 공원 그리고 오지의 마을과 같은 곳의 사람냄새가 향기롭게 피어나는 자리를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섭

최근 모르는 용어가 부쩍 많아서 대화하다가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신조어들을 사전식으로 정리해주세요.

●김은혜

기업의 친환경 활동이 대두되는 요즘입니다. 화승의 친환경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권선미

여행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있었으면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잠시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적 있는데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왕소빈

우리 사회 명사들과의 인터뷰나 수필 등을 통해 그들의 삶과 철학을 만나고 싶어요.

●서순영

개인정보유출 때문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심코 놓치기 쉬운 개인정보 유출 방지법을 소개해주세요.

●양은경

명장(名匠)들의 삶의 자세를 배우고 싶습니다. 게으름을 잘 피우는 저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게도 좋은 지침이 될 듯합니다

●이주현

'젊은이여 야망을 품자!' 취업난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에게 다양한 꿈과 길을 제시해주세요.

●문계숙

■ 2014년 화승그룹 사보 <DBT>보호 독자엽서 당첨자



※당첨되신 분께는 개별 연락드리오며,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은 2014년 4월 20일까지 051-850-7029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4월 20일까지 연락이 없을 시에는 당첨이 무효 처리됩니다.



여행스케치
3개월 무료 구독권
정두현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최향숙 (충남 태안군 태안읍

등문리), 강주찬 (부산시 동래구 중앙대로) 이용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남로), 장희지 (대구 북구 고성동3가)

※우수 독자엽서에 당첨되신 분들께는 월간 <여행스케치> 3개월 무료 구독의 행운이 주어집니다.



화승상품권 5만 원권

신승남 (인천시 부평구 안남로), 표상률 (경남 김해시 원산로) 이재섭 (서울시 중랑구 면목로), 김은혜 (전남 보성군 별교읍 채동선로), 권선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3로), 왕소빈 (부산시 금정구 금강로), 서순영 (부산시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양은경 (경북 문경시 중앙로), 이주현 (전남 여수시 여서로), 문계숙 (서울시 중랑구 신내로)

※독자엽서에 선정되신 분들께는 5만 원권 화승 상품권이 사은품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아는 것도 없는 내게. 이 회사는 돈을 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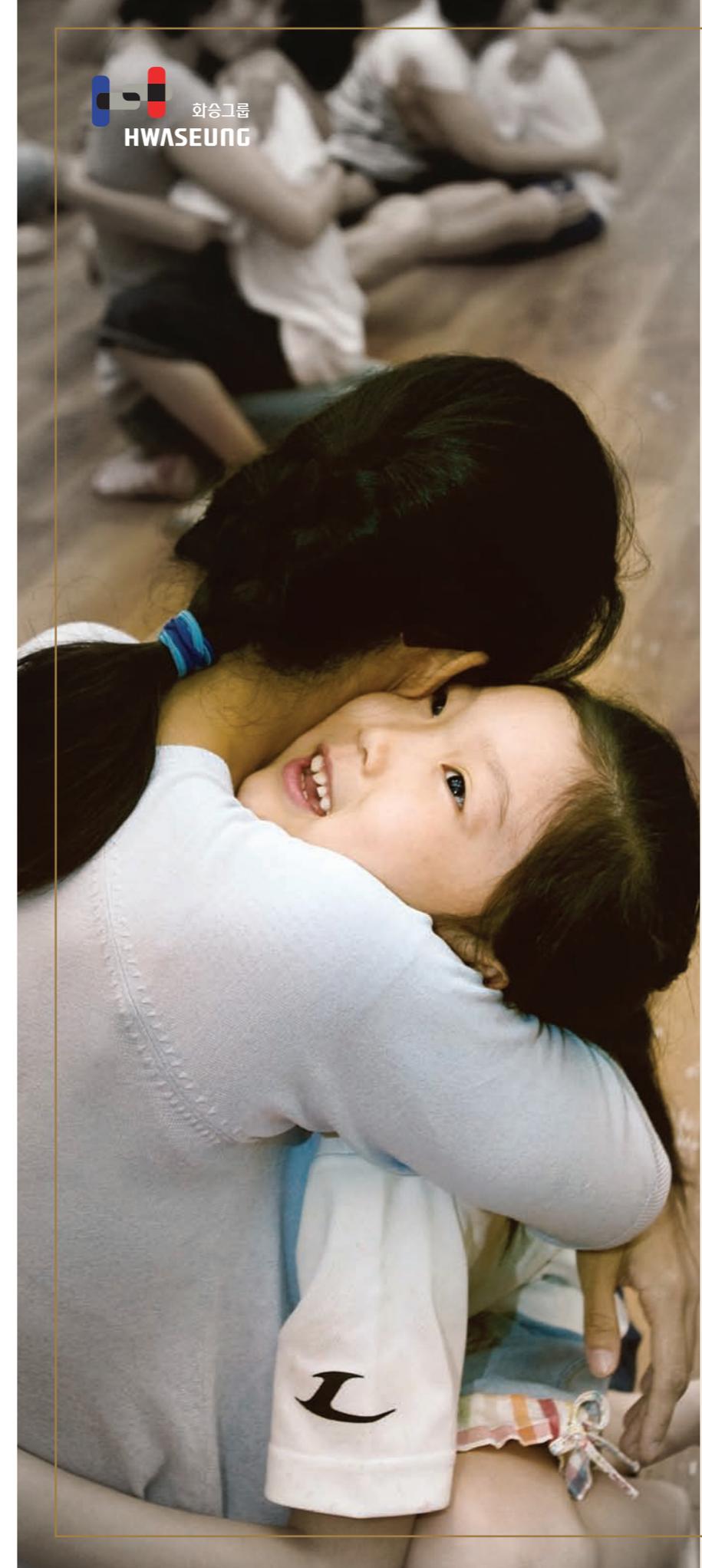
앞으로 어떻게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지? 그다지 아는 것도 없는 나에게 이 회사는 돈을 줄까? 그룹 공채 17기로, 화승R&A FL 생산기술팀 막내로, 2012년 1월 2일 첫 출근하던 그날, 겨울을 보며 내게 물었던 두 가지입니다. 조재형, 너 잘할 수 있지? 지금까지 걸어온 것처럼 아니 그 보다 더 나를 채찍질해야 한다. 그리고 내게 일할 수 있는 행복을 준 화승에게, 그리고 그동안 오늘을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해왔던 나를 떠올리며 출근을 준비합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잊어선 안 될 그 첫 출근, 첫 마음을 되새기며 화승에 대한 나의 선택이 옳았음에 또 한 번 감사합니다. 고시 같은 취업 준비 시절, 부족한 나를 화승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더불어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즐거운 나의 집, 화승. 매서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 그때를 잊지 않겠습니다.

Do Better Turn around 2014 Tomorrow

2014 Spring vol.34 2014년 3월 21일 발행

발행인 현승훈
글·사진 DBT 사람들
기획·진행 화승그룹 회장실 박동호
화승그룹 홍보팀 김병호, 박치선, 심일욱
하이미디어 P&I 이경수, 이영진, 이진우, 한수빈
편집·출판 (주)하이미디어 P&I(02-795-3364)
디자인 백선영, 장윤희, 전명숙, 이예슬
사 진 (주)유닉하우스(02-511-9205)
프로세스 하이테크컴
인 쇄 삼조인쇄주식회사

펴낸 곳 발행처 화승그룹(www.hwaseunggroup.com)
주소 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 (연산동) 장천빌딩 화승그룹 회장실
전화 051-850-7037
팩스 051-850-7001
E-mail iwsim9025@hsrna.com



더 꼭 안아줍니다! 더 꼭 안겨웁니다!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에 갈 때나
단 한 순간도 눈을 떼 수 없는 아이!
발달장애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만 더 함께하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표현이 조금 다를 뿐
같은 마음으로 친근함을 표현한다는 것을!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

봉사란 누군기를 도와주는 것만이 아니라
도와주고, 도움 받고, 가르치고, 배우는 거란 걸...

화승그룹은 세계예술치료협회의
발달장애 아동 등 장애, 비장애 형제와 함께
벽을 허무는 캠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를 통한 백혈병 소아암 환자 지원사업
- 세계예술치료협회와 소외계층 및 장애아동 예술치료 지원캠프
- 아름다운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 젊은 연주가 모임인 이지무스 오페라단 정기후원